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금리	4.006 (-0.034)	환율	1358.60 (-7.40)

환율 하락세... 수출기업에 직격탄

반도체·車 업계, 내년 계획 재점검

고환율 효과 사라져 수익성 ‘비상’
환율 반등·추가하락 예상 엇갈려
기업 매출·영업익 등 보수적 조정

1500원대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석달 만에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영 선풍이 복잡해지고 있다. 달러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 환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하반기 실적은 물론 추석 이후 본격화되는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537원 수준에서 9월 23일 1362원 수준까지 약 200원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 7월 초 1554.40원과 비교하면 3개월도 안 돼 12%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의 기준이 될 적정 환율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영업이익 목표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 계획까지 보수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에는 이미 환율 부담이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기존 115조 5000억원에서 104조 1000억원으로 11조 4000억원 낮아졌고, SK하이닉스도 76조 7000억원에서 74조원으로 2조 7000억원 하향했다. 두 회사의 전망치가 합산 14조 1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기존보다 각각 28조 1000억원, 6조 9000억원 가량 낮아졌다.

자동차 업계 역시 고환율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는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2원

을 기록하면서 환율 효과를 누렸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49조 2153억원, 영업이익 2조 8509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아는 영업이익 2조 628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분은 현대차 약 1조 9000억원, 기아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추석 이후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SK·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급변한 환율을 반영해 경영계획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단순히 수출 목표를 낮추는 것을 넘어 생산량과 투자 규모, 비용 절감 목표 등을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연휴 마지막날 영화관 ‘복직’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85주 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9월 셋째주 매매가 0.13% 상승
이번주도 상승면 역대 최장 기록
상승률 기준, 文정부 시절의 2배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으로 오르는 역대 최장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록과 같아졌다. 기간은 같지만 상승률 기준으로는 이미 당시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공급절벽, 전세난과 맞물려 추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85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역대 최장 기간과 같아졌다. 이번주에도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상승폭은 이번 상승장이 훨씬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17.5%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7.7%의 두 배가 넘는다. 85주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 첫째주 이후 67주 동안만 따로 봐도 상승률이 15.2%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2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고 ▲송파구 27% ▲마포구 23.6% ▲영등포구 22.1% ▲광진구 21.2% 등 한강벨트가 그 뒤를 이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계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M-커버스토리

AI 확산·중동 불안... 전력확보 ‘올인’

에너지 안보 시험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수출의 전기화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전력 공급의 제약에 중동발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공급 체계 재편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적용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역할을 재조정하고 유연성 전원과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난 22일부터는 향후 원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약 3개월간의 공론화에도 착수했다.

전력 공급 체계 재편의 배경에는 가파른 수요 증가가 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생

산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건설만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25~30GW 늘고, 전기차·난방 전기화까지 더해지면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발전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전원과 전력망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높은 산림 비중·인구 밀도로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가 어렵고 발전소·송전선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로이터는 전남 영광 등에서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에 계속>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농지·부동산 수탈 멈춰야” /사진 뉴시스
- ▲ 권칠승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당론 방향 제시

- ▲ 한동훈 “DMZ 폭발 조사 29일로 미룬 사람이 범인”
- ▲ 박지원 “당신들은 간첩 북풍 조작당” 여론 역공

- ▲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직격에...與 “자극적 말 꺼내 정치 선동”
- ▲ 조국, 공소취소 의원모임 해산 촉구...“대통령에 부담만 안겨”

삼성, 특별성과급 격차 이목집중… 사업부별 최대 4억 전망

산정 방식·지급 기준 안내 예정
실적 확정 후 실제 지급액 결정
내년 임단협 '보상체계 재편' 쟁점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별로 최대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추석 이후 특별경영성과급 기준 공개와 함께 노조가 격차 해소에 나서면서 보상체계 재편이 내년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특별경영성과급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을 조합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액은 올해 실적이 확정된 뒤 결정된다. 다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는 만큼 메모리와 시스템LSI·파운드리 간 보상 격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지난 5월 임금협상에서 처음 도입됐다. DS부문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마련해 40%는 공통으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로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와 시스템LSI·파운드리 실적 차이가 성과급에도 반영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봉 1억원인 메모리 직원의 성과급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를 포함해 약 6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는 약 2억1000만원에 그쳐 사업부별 격차가 4억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올해 실적이 확정된 뒤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별도 기준도 적용된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적자 사업부에는 DS 공통 지급률의 60%만 반영한다. 올해는 적용을 유예했지만 2027년

분부터 시행한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가 적자를 이어갈 경우 메모리와 성과급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사업부별 실적도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2분기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파운드리도 HBM 베이

스다와 미국 고객사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지면서 시스템LSI·파운드리 인력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DS부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2년 내 이직 의향은 파운드리가 81.5%, 시스템LSI가 75.4%로 나타났다. 메모리는 32.7%로 DS 전체 평균인 49.5%를 밑돌았다. 특히 성과급 격차가 확대될 경우 사업부 간 인력 이동이나 외부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에 노조는 사업부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음 달 6일 총회를 열고 성과급 분배의 전사 기준 통합안과 시스템LSI·파운드리 적자 페널티 개선안을 표결한다. 가결된 안건은 2027년 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부별 실적을 성과급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내년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초기업노조가 DS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점도 변수다. 지난 16~19일 총회에서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DS부문으로 제한하는 규약개정안이 9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직 재편 이후 첫 교섭인 만큼 DS 내부의 보상 문제에 교섭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타 노조에 보낸 '성과급 분배 등 교섭안 건 조율 관련 안내' 공문에서 "적자 페널티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조합원의 업무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섭 요구안 설계 전 핵심 안건으로 확정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美·멕시코 순방 마무리

핵심 등 대미 투자협상 '물꼬'… 멕시코 17건 MOU 성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협력의지 확인
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기어 방안,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등을 설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멕시코에선 양국의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2박3일간 뉴욕에 머물며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2년 연속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인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멕시코 페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유엔의 개혁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적 평화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적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동향을 맞추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예정에 없었다. 순방 직전까지 대미(對美)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한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협상이 진전되며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만난 이 대통령은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미 조전 협력,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

를 위한 후속 협의도 이뤄지기로 했다. 특히 핵잠과 원자력협정 등은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대미 투자협상 타결로 물꼬가 트인 셈이다.

미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3일 북미 시장 관문이자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세일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의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오찬,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멕시코 양국은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17건의 MOU 및 협력 문건 체결을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1면 '환율 하락세… 수출'서 계속

원화가치 등 변수 산적 재계 “시장 면밀히 분석”

다만 원화강세가 장기화할지는 여전히 변수다. 미국 물가와 금리, 글로벌 재정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기업들은 특정 환율을 전제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보다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달러당 수백원의 변동폭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용한 환율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환율, 유가, 금리에 주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85주 째 오른 서울'서 계속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 8%

고강도 대출 규제로 올해 들어서는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가파른 '평탄화'가 이뤄지면서 서초구의 상승률은 15.9%로 관악구와 같으며, 강남구는 13.9% 올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남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이달 셋째 주까지 7주 연속 하락했으며, 낙폭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급부족과 함께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 집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6.9% 감소한 2만7158가구 수준이다. 실제 가을 이사철인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만4174가구에 그쳤다.

전세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거의 따라잡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9월 셋째주 기준 8%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를 크게 웃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산업부, '韓-멕시코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체결

공동이익 연구… 무역협정 개시 준비

한국과 멕시코 정부가 상호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아닌 만큼 한국산에는 수출 장벽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국에 국내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기본틀)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이

익연구를 통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니셔티브 문서에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이 서명했다.

양측은 이 이니셔티브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광물·자원 협력방안, 진출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고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한

국 Kotra·멕시코 UIEG) 간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25일 에브라르드 장관과 가진 별도 양자면담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인상에 따라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기업들의 피해뿐 아니라 멕시코에 대한 추가 진출·투자 유인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틀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상대 측에 전달했다.

멕시코 측에 해소를 요청한 대목은 ▲통관 지연 및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ACE55)상 애로 등이다.

김 장관은 또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란메히코'(전략산업 육성)을 거론한 뒤, 한국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파트너·책임자임을 내세웠다. 이어 양자 무역협정이 맺어진다면 경제협력이 미래산업·공급망 협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무역협정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코인과세, 기준·인프라 부족… 투자자 이탈 등 경쟁력 하락”

내년 250만원 초과 소득 과세
정부 ‘소득 있는곳에 과세’ 원칙
업계·與野 ‘시기상조’ 한목소리
“취득가액 산정 할 인프라 없어
추가 유예나 폐지 검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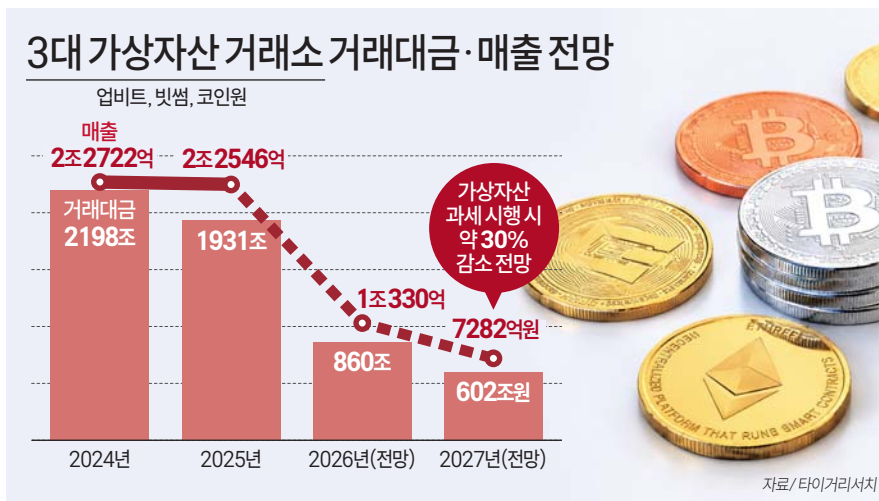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2%(20%+지방세 2%)를 과세한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거래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최초로 논의됐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및 과세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의 부재, 과세 인프라의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돼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법안은 2027년 초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 정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법령 시행을 미뤄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더



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하며, 현재 구축된 인프라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해도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 85%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 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또한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 국내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없고, 또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 업계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인프라가 없고, 과거와 달리 대어·스테이킹·에어드랍 등으로 다변화한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초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그리고 매도가격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긴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쳤다면 취득가격 산정 과정은 더 복잡해지며, 최초 취득가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빠르게 늘어난다.

관련 인프라의 부재는 국내의 거래소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내 사업자는 당국의 자료 제출이나 조사 요구에 대응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렵다. 국내 거래소에 만 가상자산 관련 과세 부담이 집중되면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이탈하는 유인이 커진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과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징수 체계나 과세 기준 등 충분한 체계가 마련돼야만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안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 따른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인식조사 분석 리포트’에서 현행 제도로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올해 860조원에서 내년도 602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1년 만에 약 258조원(30%)이 줄어드는 셈이다.

◆與野, “과세는 시기상조” 한목소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법안 시행이 시기상조인 만큼 추가 유예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내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및 DAXA가 참석하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세 차례 연기했지만, 아

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게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라며 “아직 기본법 개념도 마련되지 않았고,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과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인프라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DAXA 및 한국조세법학회와 ‘가상자산 과세 체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세 근거 법령을 점검하고, 법적 정합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한 법률은 2020년에 마련됐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 유형은 다양해졌다”라며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관련 법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거래유형별 소득 구분이나 과세 시점, 금류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 해외 거래자료가 확보되기 전에 과세가 시행되며, 주요국과 달리 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도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원전·재생에너지·LNG 등 역할 재조정 ‘AI 전력 대응’

m-커버스토리

2차 전기본 앞두고 전원재편 나서
정부, 3개월간 원전 역할 공론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원 재편 논의가 범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도 대응해야 해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원별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저장장치·전력망 구축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서로 다른 전원 특성…안정성·탄소 사이 균형

전원별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 감축 측면에서 장단점이 엇갈린다. 국내 원전 26기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인허가, 건설 등을 거쳐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 LNG는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출력 조절이 가능해 이 같은 변동성과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탄은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담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후부

하지만 LN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석탄이 담당하던 발전량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지 맞물려 있다.

◆ 원전 역할 정하고 재생 확대…석탄 대체안도 검토

정부는 이 같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12차 전기본에서 향후 역할을 조정한다. 우선 원전은 지난 22일부터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속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 등을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에 전력수급·계통 검토를 더해 향후 원전의 역할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공급 대응에는 가스발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가스발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용 설비 잠정 전망은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하면 2040년 236GW로 현재의 5.6배 수준이다. 확대되는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 확충도 함께 검토한다.

석탄발전은 폐쇄에 따른 대체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토론회에서는 2038년까지 폐쇄 예정인 39기 가운데 27기를 LNG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기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21기 가운데 최대 10기는 비상시 가동하는 ‘한보전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조기 폐지해 소형모듈원자로(SMR)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전원 구성 넘어 지역 수급·효율도 변수

전국 단위의 전원 구성을 정하더라도 실제 공급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김장관은 남서부의 경우 기존 원전 67기와 태양광·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송전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은 태양광이나 LNG 등 지역내 전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력 생산량보다 송전망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수도권 송전선로 부족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주요 제약으로 꼽았다.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전력효율지수(PUE)는 1.58이다. KEEI는 이를 2030년 1.2, 중장기적으로 1.1 이하로 낮출 경우 AI 가속 시나리오에서 2060년 전력 소비량을 22.2TWh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원전과 가스,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발전설비를 확보해도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낼 송전망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 1면 ‘AI 확산·중동 불안…’서 계속

韓 에너지 자립률 22% ‘중동의존’ 공급충격 커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계통도 제약 요인이다. 호남에서는 신규 송전선 건설에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인접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전력섬’이어서 계통 불안에 외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전원과 전력망 확대를 뒷받침할 시장과 저장장치도 과제다. IEA는 시장 기반 가격체계 도입과 한국전력 기능 분리 등 전력시장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추가적인 시장 통합이 필요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국내 전력 공급과 별개로 해외 연료 조달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2024년 22.1%로 OECD 38개국 중 35위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상선 통항량은 전쟁 전 하루 약 125척에서 지난 21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준 2척까지 급감했다.

중동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공급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2023년 71.9%, 2024년 71.5%, 지난해 69.1%에 달했다. 전쟁 이후 비중 중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에도 비용이 따른다. 지난해 배럴당 수송비는 중동산 1.87달러로 비중 중산 평균 2.99달러, 미국산 3.93달러보다 낮았다. 국내 정유설비의 중동산 원유 적합성도 단기간에 수입선을 바꾸기 어려운 요인이다. /유혜은 기자

‘리픽투’ 홀로서기 성공… 독자적 상업화로 글로벌 도약

〈담관암 신약〉

HLB그룹

HLB

◆ 빅파마 손 안빌렸다… 첫 직접 허가

HLB그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FDA에서 ‘리픽투(성분명: 리라푸그라티닙)’를 담관암 신약으로 승인받았다. 리픽투는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진행성·전이성 담관암(CCA)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 쓰이게 됐고, 리픽투 특하는 오는 2040년까지 앞으로 14년간 보장받는다.

리픽투는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비가역적 표적항암제다. 암 세포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FGFR2에 결합해 암 억제 효과를 지속하면서도 정상 FGFR1·3·4에 대한 불필요한 억제 최소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승인의 근거가 된 글로벌 1/2상(R eFocus) 결과, 리픽투는 허가 대상 환자군에서 객관적반응률 45.7%,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11.8개월 등을 기록했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1.3개월, 12개월 무진행 생존율은 49.2%에 달했다. 임상에 참여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앨리스 슈람 전문의는 “리픽투가 뛰어난 약물 유효성과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HLB그룹은 후속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동시 추진한다. FGFR2 변이가 있는 다양한 고형암 대상의 임상을 통해 암종 불문 치료제를 개발한다. 적응증 확장을 위한 해당 임상(ReFocus202)은 오는 2027년 중간분석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픽투는 우선 올해 4분기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발매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유럽 의약품청(EMA)에도 리픽투 품목허가를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리픽투, 美 FDA 담관암 신약 승인 오는 2040년까지 특허 보장 받아 올해 4분기에 美 의약품 시장 발매
진양곤 의장 “글로벌 빅파마 경험 자력 항암제 확보… 훨씬 발전적”

◆ 진 의장 “서랍 속 읽지 못한 원고 3개”

진양곤 HLB그룹 의장은 온라인 사회관계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리픽투 성공에 대한 감회를 발표했다. 진 의장은 “책상 서랍에는 HLB그룹이 노력하고 있는 항암 신약 허가가 미국 FDA를 공식 통과했다는 내용의 리보세라닙 원고가 있었지만 그간 모두 읽지 못한 원고가 됐다”며 “네 번째로 준비한 리픽투 원고는 읽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기술수출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할 때도 많았지만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제출하고 규제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를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의장은 독자적 상업화를 바탕으로 한 그룹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빅파마에게 신약을 넘기고 행보에 운명을 맡기기보다 자력으로 항암제를 확보한 뒤 ‘글로벌 약물과 HLB그룹 신약’을 병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숙원인 ‘항암 신약 승인’을 HLB그룹의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획득했다. HLB그룹은 해외 유망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인수해 글로벌 허가 및 미국 직판까지 이끌어내는 고도화된 전략을 펼친다.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을 글로벌 상업화 역량을 갖춘 신약개발 기업으로 부팅하는 데 성공했다.



① 지난 24일 유튜브의 HLB그룹 공식 계정에서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리픽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② HLB그룹 전경. ③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HLB 학동 사옥에서 열린 ‘HLB 그룹 GI 선포식’에서 진양곤 HLB그룹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주요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④ HLB 임직원들이 다함께 ‘HLB WAY’를 선포하고 있다.

/HLB그룹



용으로 함께 개발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발전적”이라며 “리픽투를 시작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리보세라닙’의 끝나지 않은 도전

HLB그룹의 리부팅 전략은 단일 신약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역시 미국 FDA 허가 재신청에 시동을 걸었다.

리보세라닙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나 미국 진출이 불발됐다. 미국 FDA로부터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제조소문제를 지적받으면서다. 병용요법인 만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

질관리 기준(cGMP) 준수, 화학합성·공정생산·품질관리(CMC) 보완 등이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도 승인될 수 없는 상황이다.

HLB그룹은 현재 항서제약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돌입해 있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FDA에 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간암 신약으로 허가 시 선암, 흉선암 등으로 리보세라닙 처방 영역을 연쇄적으로 넓혀갈 계획인 만큼 HLB 그룹은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첨단 기술 기반 성장동력 마련

진 의장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재편과

사업 다각화도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다. 진 의장은 올해 반년 만에 경영 최전선으로 복귀해 HLB이노베이션 대표를 맡는 등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HLB이노베이션이 기존 사업인 반도체와 미래 사업인 바이오를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독자 구축한 ‘KIR-CAR 플랫폼’과 자체 파이프라인으로는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SynKIR-110,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SynKIR-310 등을 보유하고 있다.

HLB그룹 내 펩타이드 전문기업 HLB 펩드 고부가가치 사슬의 핵심 축이다. 고순도 펩타이드 제조 기술로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기반을 다졌다. 우선 항이노호르몬 치료제에 쓰이는 ‘바소프레신’ 원료의약품 등을 국내 식약처, 미국 FDA 등의 원료의약품목록에 등록했다.

한편, 해외에서 수주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일본 세포치료 기업 ‘리프코셀’과 맞춤형 신항원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까다로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홍콩 ‘노바브릿지’와 협력해 글로벌 B2B 영업망을 확대했다. 연구용 펩타이드부터 산업용 펩타이드까지 아우른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FDA 재도전
진 의장, HLB이노베이션 책임경영
HLB펩, 순도 펩타이드 제조 ‘핵심’
H·홍콩 등 글로벌 수주 활동 박차

분산된 계열사 한 공간으로 집결
지난달 새 그룹 철학 ‘HLB WAY’

◆ ‘학동 시대’…HLB WAY 그룹 결속

HLB그룹은 올해 학동 시대 1년차를 열었다. HLB를 필두로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 등 서울에 분산되어 있던 주요 계열사들이 한곳에 집결했다. 제약·바이오 부문 20여 개 계열사와 생활·건강 부문 자회사들이 한 공간에서 물리적 경계를 허물며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점차 커지는 상생 체계를 조성했다.

올해 8월 새롭게 설정한 그룹 철학 ‘HLB WAY’는 창의·도전·협업·몰입·변화·소통 6대 가치를 집약한 이정표다. 그룹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앞으로도 신약개발 성공, 글로벌 시장 진입 등을 이뤄냄으로써 K바이오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 의장은 지속가능한 그룹 성장을 위해선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와 금융당국의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HLB그룹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하루 거래량의 20~40%에 달하는 공매도 공격과 각종 악의적 루머는 계속됐다.

진 의장은 이번 유튜브 발표에서 “주가 내려가야 돈을 버는 이들에 의해 유표된 루머와 고착화된 매매 패턴은 단순한 공매도를 넘어선 주가 조작 정황”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매매 행태를 주가 조작범 조사 기준으로 철저히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기업이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신한금융그룹이 금융의 청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생산적·포용금융
20조원 지원
'26년 7월 기준



국가기반산업·핵심산업
성장자금 공급
금융주선 2.8조 | 펀드 1.2조
대출 3,250억 * 국민성장펀드, 벤처펀드 등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신한SOL클러스터
수원·광주·부산 개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대법관 후보 재제청부터 ETF까지… 여야 ‘국감 전쟁’ 예고

내달 6일부터 상임위 국정감사
국방위, DMZ 지뢰 진상규명 주목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공방 예상

여야가 국회에서 다음달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 DMZ(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관련 진상규명, 부동산 공급 확대,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각 상임위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정쟁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버리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조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과 완전히 다른 모습’,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향의 방문하고 있다. /뉴스시

고 입을 모았다”며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앞에선 웃고 해외순방을 가니 갑자기 재제청 거부를 발표한 모습이 앞에선 웃고 바로 뒤돌아서서 비수를 쏘는 다든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여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국정감사 시작 시 모두발언을 하고 곧바로 퇴장한 뒤, 감사가 끝날 때 다시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시도가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지난 21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원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DMZ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인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뢰 폭발 사건 외에도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해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공원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의 규제를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겐 녹지를 물려주기 위해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의 규제 완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도 좋은 입지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이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서?“집 가진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떨어 있다. 집값은 이 정권이다 올려놓고 집값 올랐으니 세금 왕창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행생 아껴 모아 집 한 채 장만하신 어르신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할 판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지목하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책임 소재를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DMZ 지뢰사고 진상규명… ‘현장 vs 국회’ 격돌

지뢰 폭발로 수색대대원 3명 중경상
여당 오늘 현장조사로 진상 파악

여야가 지난 21일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원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현장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자체 현장조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국회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야당이 맞서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과주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 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과 유엔사는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與 “현장조사로 진실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의 선넘은 정치공세는 일축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부연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방위원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라고 요구한다”며 “그래서 국방위원들은 28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놓고 질의하는 것보다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며 “국방위를 열어 따지자면, 국방위원들이 함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28일 현장방문 계획을 알리며 “폭발사고의 원인과 경위는 무엇인지, 수색로 개척작전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사고 조사항동은 철저하게 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방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발사고의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정작 국방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현장방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野 “국회에서 현안질의 일어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지뢰 폭발이 북한 측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제기하며 여당 주도의 현장방문이 진상규명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히 말한다. 쇼하지 말라”며 “지금 의원들이 부대로 물러가도 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사고를 수습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부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고 전 어떤 상황을 파악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현장조사가 늦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지금, 이 안보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 대통령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조희대 재제청 거부… 민주당, 사퇴 압박 수위 높인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측은 추석 연휴 전까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 외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현안질의가 갈등 국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로 실질적으로 현안질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현안질을 추진하는 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쏘고, 뒤통수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을 ‘사법부 길들이기·삼권분립 훼손’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서다. 또 당청이 대법원과 갈등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DMZ 지뢰 사고까지 대여 공세

“北 눈치 보기”… 정부·군 대응 비판

‘김승원 자격수’로 나섰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를 촉구하며 안보 현안으로까지 대여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의원의 북당 논의에 선을 긋고 있어 당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시

당국의 현장조사 준비 과정과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은행 거래부터
주식 투자까지 한번에

신한 super SOL만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SOL LINK

슈퍼SOL에서 SOL LINK로 주식거래하고
테슬라 당첨의 기회까지
(조건 충족 시, ~9/30)



SOL LINK
개설하기



이벤트
바로가기

[공통]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물 유효기일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신한은행]** ※SOL LINK는 은행 계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 업무도 가능한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복합연계 상품입니다. ※신한 SOL LINK는 만 19세이상 국민인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0.1% (2026.6.17 현재, 세전),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문의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 ~ 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제휴채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입니다. ※테슬라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문의는 신한투자증권(02-3772-2220,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에 문의 바랍니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206호(2026.07.01 ~ 2026.09.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172호 (2026.07.01 ~ 2027.06.30)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담보 ‘장밋빛 손해율’ 막는다… 보험사 ‘CSM 경쟁’ 새판

금융당국, 보험부채 과소평가 방지
6월 말 결산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신계약 예상 미래이익 줄어들 수도
보험료·CSM 변화시점은 하반기

앞으로 보험사가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위험담보의 미래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잡기 어려워진다.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신담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마진(CSM)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사의 상품 판매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말 결산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요율에 약 10%의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해당 담보를 포괄하는 상위담보의 실적손해율 가운데 높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간편고지 유형은 보험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늦출 수 있다.

◆ CSM·보험료 조정 가능성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담보에 유사 담보의 손해율을 적용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이미지.

하거나 자체적으로 낮은 가정을 사용했다. 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장래 보험금 지급액이 적게 예상돼 보험부채는 줄고 미래이익인 CSM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고,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담보를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손해율 가정이 높아지면 같은 규모의 신계약을 판매하더라도 계약 한 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미래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보유계약도 미래 현금흐름 재평가에 따

라 CSM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같은 폭으로 즉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손해율과 상품 포트폴리오, 남아 있는 CSM 규모가 달라 회사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보험사의 대응도 보험료 인상과 보장한도 축소, 지급조건·인수기준 조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보장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손해율 가정이 낮았던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기존에 적용해 온 손해율이 달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CSM 총량이 바뀌면서 미래 수익성이 재평가되고, 일부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자체는 2분기 결산부터 반영되지만 실제 보험료나 CSM 변화가 실적에 나타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계리 역량이 승부처

사업비 가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장래 계약관리비 등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여러 상품과 부서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실제 발생기간에 맞춰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

미래 보험금과 계약 유지·관리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신담보의 예상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독립보험대리점(GA) 수수료와 사책을 포함한 판매비 집행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계리가정 변경이 곧바로 수수료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간 통계·계리 역량의 격차도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한 보험

사의 손해율 산출단위는 1100여개였지만 다른 보험사는 41개에 그쳤다. 연령과 성별, 직업 등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손해율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이유다.

데이터가 많다고 신규 담보에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험통계가 쌓인 이후 실제 손해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 보험료와 보장구조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상품 수익성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간편고지 보험은 적용을 연말까지 늦출 수 있어 영향도 단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일반 신담보는 반기 결산부터, 유병자 대상 간편보험은 연말 결산부터 CSM과 상품 수익성 재평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기존에 적용해 온 손해율이 달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CSM 총량이 바뀌면서 미래 수익성이 재평가되고, 일부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가계대출 규제·홍콩 ELS 등 국감 달군다

2026 금융위 국감 주요쟁점
대출규제, 실수요자 혼란 키워 논란
홍콩ELS 과징금 대폭 축소 ‘화두’
레버리지ETF·금융사고 질의 예상

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고위험 금융상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안전판매에 대한 제재수위가 적정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감액,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꼽혔다.

대출 규제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과도하게 막고 있는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13일 이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도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감에서는 이처럼 대출 규제 기조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운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총 38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액을 넘어섰다.

홍콩H지수 ELS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당초 4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과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의 자율배상 노력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위반



국회 정부위원회가 지난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기관들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시스

이라는 점 등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감경 근거가 타당했는지와 함께 불안전판매 과정에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경영진의 책임을 충분히 물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에만 허용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내외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두 달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은행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

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도 임직원 횡령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와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등 외부인 사기, 해외 점포 사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위 직접 피감기관인 IBK 기업은행에서도 중국법인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은행과 금융지주에 책무 구조도가 시행된 이후인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이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감에서는 개별 금융사고의 발생 경우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금융사고까지 금융당국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 8개 단지서 주간 분양 3641가구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1927가구

인천 계양3기 신도시본청약을 비롯해 경기 광명, 부산 예코델타시티 등 주요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단지의 분양이 시작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36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1927가구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 경남 진주시 판문동 ‘진주 판문지구레이크씨밋웰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금강센터리움에코리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한 곳도 없다.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6가구 규모다. 이케아, 코

스트코, AK플라자,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 인프라가 인접해 있다. 1호선과 KTX를 비롯해 평택과주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단지 앞 밝은빛유치원, 서면초, 안서중, 창의경영고가 위치하며 소하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름산지구는 계획형 주거지로 조성 중이며, 향후 시티프라디움 브랜드타운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진주판문지구레이크씨밋웰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IC가 가까워 진주 도심과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평거초를 도보통학 할 수 있고 경해여중·고, 선명여고, 평거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진양호공원, 판문천수변공원, 남강, 평거시장 등이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리풀1지구 2028 하반기 착공 ‘속도전’

LH, 패스트트랙 적용… 물량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리풀1지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초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공급 물량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LH는 내년 3월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LH는지구내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주택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안하가와 보성, 공사 등 모든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토지와

건물 등 보상 대상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LH는 당초 발표한 물량보다 500가구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성훈 LH 사장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문함에 따라 소음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통해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에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신설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성채리 기자 cr56@

삼성SDI, ESS·배터리 중심 실적개선… 차세대 제품군 확대

3분기 매출 4조, 영업이익 1318억 전망
소듐이온 배터리 관련 브랜드 출원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고출력 배터리 판매를 늘려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ESS용 소듐이온 배터리 개발과 브랜드 출원 등 차세대 제품군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4조 389억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318억원으로 전망된다.

사업 부문별로는 소형전지와 ESS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배터리백업유닛(BBU)과 전동공구용 배터리 판매 확대가 소형전지의 흑자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ESS 부문은 이월 물량 반영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요 증



삼성SDI 기흥사업장.

/삼성SDI

가가 매출 확대를 이끌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고출력 배터리 판매 증가는 2분기 실적 개선에도 기여했다. 삼성SDI는 무정전전원장치(UPS)·BBU·전동공구용 고출력 배터리와 유럽형 전기차 배터리 판매가

늘면서 2분기 매출 3조 7688억원, 영업이익 2038억원을 기록했다. 7분기 만의 흑자 전환이다.

삼성SDI는 ESS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앞세워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에너지

전문업체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ESS용 각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가 공급을 늘리는 ESS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출하량이 증가하고 각형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ESS용 배터리 출하량은 461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다. 각형 배터리 비중은 올해 94%로 추산됐으며, 2035년에는 9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SDI는 북미 ESS 수요에 맞춰 현지 생산라인도 전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티플러스에너지(SPE)의 인디애나 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바꾸고 있으며 올해 4분기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제너럴모터스(GM) 보유 지분을 인수해 시너지셀즈를 단독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생산 거점은 ESS와 첨단 응용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첫 상용화 분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유력하게 보고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휴머노이드용 샘플을 공급하고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UPS와 전력용 ESS 제품으로 개발 중이며 관련 브랜드 '소듐스택(Sodium Stack)'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내 업체들은 ESS용 각형 배터리와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로봇용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ESS와 고출력 소형 전지 판매를 늘리는 동시에 전고체·소듐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을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AIDC 냉각솔루션 '엔비디아 파트너' 등재

NPN '파워 앤 쿨링' 분야 선정
글로벌 냉각 솔루션 사업 '청신호'

LG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사업 기회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PN)'에 파워 앤 쿨링(Power and Cooling) 분야 파트너(PREFERRED)로 정식 등재됐다고 27일 밝혔다.

NPN은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과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검증된 파트너와 솔루션을 고객에게 연결하고, 파트너사들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기술 협력, 영업 기회, 마케팅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등재로 LG전자는 엔비디아 기술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글로벌 고객에게 냉각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게 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기획·설계 초기 단계부터 칠러와 냉각수 분배장치(CDU) 등이 검토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G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600kW와 1MW급 냉각수 분배장치에 대한 엔비디아 규격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여러 서버 랙을 한꺼번에 냉각할 수 있는 2.5MW급 대용량 제품도 AI 팩토리 규격 승인을 받아 엔비디아의 'DSX 레디 CDU'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NPN 파트너 등재를 바탕으로 메가와트(MW)급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인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자인 코로케이션 업체 등을 주요 고객군으로 공략하고 있다.

AI 서버의 고집적화로 랙당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액체냉각 솔루션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AI 데이터센터의 액체냉각 솔루션 도입률이 2024년 14%에서 2027년 약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2011년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에 진출해 대형 공랭식수랭식 칠러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고밀열 AI 서버용 집열을 직접 식히는 액체냉각 솔루션까지 제품군을 넓히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냉각수를 생산하는 칠러와 이를 정밀하게 분배하는 냉각수 분배장치, 칩의 열을 직접 흡수하는 플레이트까지 아우르는 '칩 투 칠러(Chip to Chiller)' 라인업도 갖췄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AET 20주년·아우스빌동 10주년을 맞아 정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통합 출범식 개최했다.

벤츠코리아, 미래차 산업 전문인재 육성 '앞장'

'AET' 중심 인재육성 체계 운영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전문 정비교육, 취업 이후 역량 강화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으로 차량 정비 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 '모바일 아카데미'와 정비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AET(Automotive Electric Traineeship)'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모바일 아카데미는 자동차 산업과 직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교특강과 대학과정을 통해 자동차 기술 교육은 물론 현직 전문가 멘토링, 직무 소개, 공식 파트너사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며 산업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후 전문 테크니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AET가 이어진다. 벤츠코리아는 2006년 자동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MT를 시작했으며, 2022년 전기차 정비교육을 강화한 AET로 개편했다. 올해로 운영 20주년을 맞은 AET는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 구동 시스템, 충전장치 등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기술과 작업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 정비까지 다

뤄 다양한 차량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운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모바일 아카데미 수료생의 약 50%가 자동차 관련 직종에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벤츠 네트워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AET 합격자 중 모바일 아카데미 출신 비중도 기수 평균 47.37%에 달했다.

교육 이후에도 후속 과정이 이어진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네트워크에 진입한 테크니션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술교육을 제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학생 단계에서 시작한 진로 탐색이 전문 교육과 취업을 거쳐 현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취업 이후에도 단계별 기술교육을 제공해 테크니션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학생 단계의 진로 탐색을 전문 정비교육과 취업, 현업 역량 강화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모바일 아카데미' 우수 수료생에 독일 본사 탐방 기회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 참가… AI 생태계 경험 전면에

갤럭시 Z 시리즈, 오디세이 G9 등 전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K-컬처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27일 삼성전자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K-팝과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류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개별 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바일과 TV, 가전 등을 AI로 연결하는 생태계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다. ▲갤럭시 AI(Galaxy AI)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중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85형 Micro RGB TV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심으로 스마트폰, TV, 모니터, 웨어러블, 가전 등 다양한 제품과 AI 기술을 연결해 관람객이 K-컬처를 한층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 했다.

관람객들은 갤럭시 Z 시리즈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하고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2026년

형 삼성 TV에 탑재된 비전 AI 컴패니언을 통해서도 대화형 AI 기반의 개인화 콘텐츠 추천 기능을 경험했다.

스마트싱스는 갤럭시 기기와 TV, 비스포크 AI 가전을 연결해 여러 기기를 한 곳에서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기능을 소개했다.

부스는 K-팝 바와 스트리머 스튜디오, TV룸, 게이밍존, 웰니스존 등으로 구성됐다. K-팝 바와 스트리머 스튜디오에서는 갤럭시 Z 시리즈를 활용한 음악 감상과 콘텐츠 제작을, TV룸에서는 마이크로 RGB와 더 프레임 프로를 통한 K-드라마·공연 감상과 아트 모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게이밍존에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을 배치했으며, 웰니스존에서는 갤럭시 워치9와 삼성 헬스를 연동해 활동량과 수면 패턴 등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K-뷰티’ 이제 시작… 헤어·바디 틈새시장으로 글로벌 공략

도전! 스타트업

김성준 몽클로스 대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42길 42.

제품을 팔기위해 지난 2025년 4월 한남동에 있는 2층짜리 구옥을 임대해 매장부터 냈다. 온라인부터 시작하는 여느 K-뷰티 브랜드와 달리 오프라인부터 공략했다. 두 달 뒤인 6월부터는 매장을 정식 오픈했다.

리움미술관, 블루스퀘어 그리고 한남동 카페거리와 인접해 있는 이 곳은 일찌감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핫한 공간이 됐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패션 브랜드들도 이미 하나 둘씩 주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우스 뷰티 브랜드 '몽클로스(MONCLOS)'의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 몽클로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의 탄생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뷰티 브랜드가 4만~5만개 정도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독매장이 없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과 브랜드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

몽클로스 김성준 대표의 말이다.

‘오프라인이 럭셔리’라는 역발상을 서울 한남동에서 실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대표가 한남동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뷰티 스토어가 아닌 브랜



김성준 몽클로스 대표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매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남동서 ‘오프라인 럭셔리’ 실험 웰컴티·사진 인화·제품 경험 제공 방문 고객의 92%, 외국인 관광객 이니셜 키링 제작 프로그램 선택

중 등 10여개국 수출…美 공략도 내년 해외 첫 직영매장 ‘타이베이’

드 철학과 자연의 흐름, 그리고 감각의 리듬을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한남동만의 세련된 로컬 문화와 결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님이 몽클로스 한남에 들어서면 웰컴티를 내어주고 사진을 인화해 소장하게 한다. 빈티지 카우치에 앉아 쉬면서 몽클로스의 모든 제품이 담겨 있는 향기로운

부채 모양의 시향지를 통해 제품을 경험한다.

전략은 적중했다.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유일한 몽클로스 매장이기도 한 한남동에서만 월 매출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한남동 매장 방문 고객의 92%는 외국인들이었다. 평일엔 50~60여명, 주말엔 100명 넘는 고객들이 들러 1인당 최소 수만 원 어치씩 제품을 구매한다.

김 대표는 “한남동은 명동과 비교하면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주기위해 이니셜 키링을 결합한 핸드크림, 선크림 등 제작 프로그

램도 선보였다. 매장 구매 고객의 약80%가 키링 결합형 제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매장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를 하고, 이를 본 해외바이어들이 몽클로스 한남동 매장을 찾아왔다.

‘디지털로 브랜드를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 서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 대표는 “중국과 일본 바이어가 매장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그 사이 수출국은 대만,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10여개국으로 늘었다. 모두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7월에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후 단 열흘 만에 판매 랭킹 전체 1위 및 헤어 케어 카테고리 랭킹 1위를 기록하더니 같은해 10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올리브영 600여개 매장에도 당당히 입점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인 타겟(Target)의 뷰티 특화 공간인 ‘타겟 뷰티 스튜디오(Target Beauty Studio)’에도 들어가며 미국 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선다.

‘나의 포도밭’이란 뜻을 가진 몽클로스가 선보이고 있는 제품은 현재 샴푸,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 바디워시, 바디로션, 핸드크림 등 바디케어, 그리고 선크림, 디퓨저 등이다.

기초·색조화장품을 지향하는 일반 K-뷰티 브랜드와는 방향을 아예 달리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선 K-뷰티가 끝물이라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이다. 다만 일반 화장품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선보이고 있는 헤어, 핸드&바디 제품은 틈새시장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K-문화가 주류다. 이를 통해 남미,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수출 영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05년 당시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인 에르메네젤로 제냐의 미국 뉴욕 쇼룸에서 홀세일 머천다이저로 글로벌 명품 패션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몽클로스 브랜드를 이끌며 K-뷰티 분야에서 또다른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몽클로스 브랜드의 종착점은 글로벌이다.

“몽클로스가 해외로 나가는 전략도 오프라인이다. 매장은 각 나라의 각 도시에 하나씩만 둘 계획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 곳의 허브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하고 싶다. 해외 첫 직영 매장은 내년 초에 대만 타이베이에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에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뷰티월드에도 나가 중동 시장도 추가 공략할 예정이다.”

K-뷰티 시장에서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동이 걸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시몬스 테라스’서 모든 매트리스 체험하세요”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 새 단장 온라인 탐색 후 오프라인 체험·구매

시몬스가 경기도 이전의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1층에 위치한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을 새롭게 단장해 다시 열었다.

27일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몬스 테라스 내 ‘매트리스 랩’ 공간을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으로 조성하고,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왔다. 침대의 특성상 직접 누워 본 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리뉴얼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탐색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의 구매 경험을 보다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 이전 ‘시몬스 테라스’ 1층에 있는 매트리스 랩 내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 전경.

이에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에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의 온라인 전용 매트리스 전 라인업을 진열해 국내 시몬스 스토어 중 유일하게 모든 제품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존에는 퀸(QE) 사이즈는 물론 라지킹(LK), 킹오브킹(KK) 등 다양한 사이

즈의 매트리스가 배치했으며 ‘국민 프레임’으로 불리는 스테디셀러 ‘D2178’을 비롯해 2026 F/W 시즌 신제품 프레임 ‘루티안’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체험존에는 시몬스가 독자 개발한 난연 소재 ‘백시덤 세이프티 패딩’과 ‘바나눔 포켓스프링’ 등 매트리스 내장재를 전시해 방문객들이 소재의 안전성을 눈으

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을 둘러본 후에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 스토어’로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시몬스의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존 리뉴얼 오픈을 기념한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체험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시몬스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시몬스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특별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또한 당일 발급한 무료 커피 쿠폰 화면을 시몬스 테라스 내 카페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에게 제시하면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 시몬스 테라스에는 프리미엄 버전 매트리스 N32의 플래그십 스토어 ‘N32 테라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키녹’ 프리미엄 조식·BBQ 식음료 서비스 강화

교원그룹이 운영하는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이 F&B(식음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프리미엄 조식과 프라이빗 BBQ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미식 경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키녹의 카페 스니프(Sniff)는 시즌별 브런치와 디너 메뉴를 비롯해 매일 아침 갓 구운 스콘·크루아상·페이스트리 등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명파치노, 명파르페, 명치킨, 명파자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메뉴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블루리본서베이: 전국의 맛집 2025’에 수록되며 F&B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키녹은 고객의 체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F&B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먼저 매일 아침 제공하는 조식 ‘굿모닝 서비스’를 프리미엄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저녁에는 야외 펫파크 내 프라이빗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BBQ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BBQ 서비스’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을 찾아 이동하지 않아도 호텔 안에서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키녹 관계자는 “프리미엄 조식을 추가해 조식 선택지를 넓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에서 BBQ를 즐길 수 있는 메뉴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숙객과 반려동물이 키녹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F&B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HS효성, 멕시코에 첨단소재 거점 구축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 MOU 체결식

HS효성이 멕시코에 첨단소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지 생산·공급 기반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HS효성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산루이스포토시

주 정부와 2027년부터 대규모 현지 생산기지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서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마리오 가르시아 발데스 산루이스포토시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참석해 HS효성의 멕시코 투자 및 현지 사업확대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며, HS효성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현지 투자 계획과 향후 사업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S효성은 산루이스포토시주에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첨단소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북미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HS효성은 세계 시장 1위 제품인 타이어코드를 비롯해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방산 등 분야의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타이어코드, 에어백, 모빌리티 인테리어 등을 생산해 GM과 굿이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기존 모빌리티 소재를 넘어 우주항공·방산·드론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 최대 복합재료·첨단소재 전시회 ‘CAMX 2026’에서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탄섬(TA NSOME)’을 비롯해 드론용 3K 직물·복합재, 인공위성용 고압용기 등을 선보이며 북미 첨단소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이번 투자는 멕시코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북미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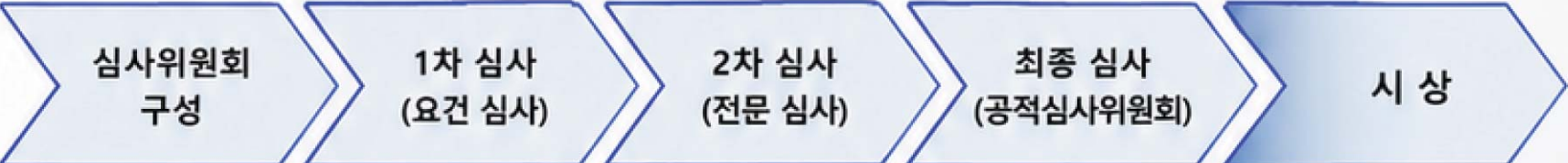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해킹 대책에 3676억 쏟은 통신3사… 국감서 실효성 따진다

정보보호 투자·인력 대폭 늘려
실제 보안체계 개선 현황 집중 점검
고가 요금제 지원금 경쟁 등 ‘쟁점’

지난해 잇따른 해킹 사고로 홍역을 치른 통신3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안 후속조치를 점검받는다. 사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인력 확충에 나선 만큼 실제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안 관리체계가 재발방지 조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최근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해킹 사고 이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 각사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확대가 시스템 취약점 개선과 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보안 사고 이후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총

3676억원으로 전년보다 22.1% 증가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합산해 정보보호에 1434억원을 투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276억원, 966억원을 집행했다.

전담 인력도 확대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526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었다. KT(317명)와 LG유플러스(351명)는 각각 9%, 20% 증가했다.

통신 3사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만큼 국회는 실제 이행 여부도 따져볼 전망이다. 각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KT는 1조원, SK텔레콤은 7000억원,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침해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KT와 LG유플러스는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별개로 2024년

발생한 서버 악성코드 감염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개보위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불거진 서버 폐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 나타난 고가 요금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 문제가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 통신 3사의 1인당 평균 공통 지원금은 39만9000원으로 15% 늘었다. 다만,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경쟁이 실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논란이다.

이 밖에 유통점별 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중소 유통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AI 팩토리에 ‘보안 AI’ 신는다

과기부 보안 AI 개발 사업자 선정
700B급 보안 특화 AI 모델 2종
LG CNS 등 33개 기관과 개발

네이버가 해외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보안 AI까지 함께 공급한다.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구동하는 ‘공장’뿐 아니라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모델과 이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안 기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 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보안 AI 모델을 향후 글로벌 AI 팩토리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국가에 AI 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컴퓨팅 인프라와 현지에 특화된 AI 모델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 AI까지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AI 팩토리에 ‘보안 독파모’ 신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LG CNS 등 총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

한다.

컨소시엄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의 ‘엑스원’을 기반으로 700B급 보안 특화 AI 모델 2종을 개발한다. GPU 4000장을 투입하고 약 830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다.

일반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모델은 사이버 위협 분석과 대응 등 보안 업무에 특화된다.

개발된 모델은 전력·금융·과학기술·통신·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 등 7대 전략산업과 국가 핵심시설에서 실증한다. 외부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폐쇄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안이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보안 AI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이를 해외 AI 팩토리 사업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현재 엔비디아, 브룩필드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세종’의 AI 팩토리 규모를 기존 55메가와트(MW)에서 2028년 200MW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프라·AI·보안 묶어 ‘폴스택’ 수출

보안 AI가 결합되면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 영역도 넓어진다. 데이터센터와 G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모델과 이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네이버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소버린 AI는 각 국가가 자국 데이터와 언어, 문화에 맞는 AI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단위 AI 인프라인 만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와 모델을 보호할 보안 기술도 중요하다.

네이버는 해외에 구축하는 AI 팩토리를 향후 ‘사이버안보 협력 허브’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계 각지의 AI 팩토리에서 보안 AI를 함께 가동하고 각 거점에서 축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경험과 보안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결국 AI 팩토리를 단순한 데이터센터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AI와 사이버보안을 함께 담당하는 거점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프라와 AI 모델, 보안까지 자체 생태계에서 제공할 수 있어 글로벌 소버린 AI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내달 출시

12가지 기술 자유롭게 변경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모바일 MMORPG ‘도깨비의세계’를 내달 8일 오전 11시 정식 출시한다. 복잡한 성장 시스템과 고정된 직업 체계 등 기존 MMORPG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2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도깨비의세계’는 이용자가 별도의 공략이나 복잡한 효율 계산 없이 플레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장 과정에서 무작위 실패 확률이나 조건부 제약을 줄이고 기술 성장에 따른 성능 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캐릭터 생성 단계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도 낮췄다. 이용자는 12가지 기술 스타일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전투할 수 있다. 기술 스타일은 정면 화력, 거리와 흐름, 변수와 제어, 아군과 전선 등 4개 계열로 나뉜다.

사냥과 보스 레이드, 문과 전장 등 콘텐츠에 따라 기술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새로운 직업을 플레이하기 위해 캐릭터를 처



도깨비의 세계 대표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음부터 다시 육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동일 계열 기술 3개를 조합하면 궁극기 강화와 전용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신식 개방’ 시스템도 적용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요몽’도 게임 내에 탑재한다. 요몽은 이용자의 사냥 데이터와 재화 소비량, 성장 상황 등을 분석해 부족한 성장 요소와 전술 방향 등을 안내한다. 외부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략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다.

문과 콘텐츠 참여 현황과 소셜 활동 기록 등도 요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과와 연계한 일부 확장 기능은 정식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 AI로 크리에이터 지원 확대

편집·번역·댓글 관리 기능 공개

유튜브가 영상 편집부터 댓글 관리, 실시간 번역까지 크리에이터의 작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확대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행사 ‘메이드 온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했다. 새 기능에는 모회사 구글의 AI 모델이 활용된다.

유튜브는 2027년 초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니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편집 도우미를 유튜브 쇼츠와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크리에이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영상 편집을 돕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크

리에이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유튜브는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댓글 관리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얼굴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AI 영상을 찾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외형 감지 도구’도 확대하고 향후 음성 보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라이브 방송에는 AI 자동 더빙 기능을 적용한다. 2027년 초부터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다른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브 시청 시간이 가운데 해외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만큼 언어 장벽을 낮춰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시청자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빛나 기자

KT ‘오토모델라우터’, 글로벌 평가 2위

LLM 라우터 전문 벤치마크서
정확도·비용 최적화 인정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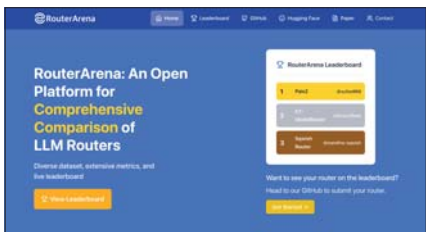
KT는 인공지능(AI) 모델 라우팅 기술 ‘오토모델라우터’가 거대언어모델(LLM) 라우터 전문 공개 벤치마크인 라우터 아레나에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우터아레나는 미국 라이스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LLM 라우터 평가 플랫폼이다. 약 8400개의 질의를 활용해 AI 라우터의 응답 정확도와 비용 효율성, 입력 변화에 대한 견고성 등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T-모델라우터’로 공개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린 이 기술은 핵심 평가 기준인 ‘Acc-코스트 아레나’ 기준 2위에 올랐다. 이는 정확도와 비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 모델 라우터 등 상용 기술이 등재됐다.

회사 측은 “여러 AI 모델 가운데 이용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면서도 품질과 비용을 함께 최적화하는 KT의 모델 라우팅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라우팅이란 데이터가 전달되는 네트워크 과정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LLM 라우터 전문 공개 벤치마크 라우터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KT의 ‘KT-모델라우터’가 종합 2위를 기록했다.

/KT

과정이다.

KT가 개발한 오토모델라우터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 난이도, 지식 분야를 여러 AI 모델 중에서 선택하는 기술이다. 모델별로 응답 품질과 이용 비용을 고려한 라우팅 정책에 따라 해당 요청을 처리할 모델을 연결한다.

/조민선 기자

美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수두룩’ 개인·기관, 채권 투자행보 잇갈려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금리 상승세 개인, 채권형 ETF 8900억 순매도 기관, 개인 순매도 종목 1조 순매수

“미국 국채는 믿을 만하다면서요?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아서 채권 가격이 오를 다면서요? 그런데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 모양인가요?”

2025년 1월 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7%를 찍자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쏠쏠돈을 투자했던 회사원 이모(43)씨는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자 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 초중반까지 떨어지자(채권 가격 상승), ‘드디어 계좌에 별이 드는구나’ 싶었지만 채권 금리 그래프가 최근 다시 바짝 고개를 들었다(채권 가격 하락). 현재 이씨의 ETF 수익률은 -9%. 이런 투자자가 수두룩하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미 국채 투자 붐이 분 지 2년여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바짝 올렸던 미국에서 다시 금리 정상화 기미가 보이자, 장기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가 몰렸다. 국내 상장된 ETF 등을 통한 미국 장기채 투자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는 커녕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치솟았고, 투자자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27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 미국 장기채 ETF 순자산 상위 10개 종목의 연초 이

후 수익률(분배금 포함)은 평균 -7.78%다.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H)이 -13.72%로 가장 부진했고,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13.33%),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H)(-9.4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연초 이후 19~31%대 손실을 낸 국내 30년 국고채 ETF보다는 낙폭이 작다.

환헤지 여부에 따라 희비도 갈렸다. 순자산이 가장 큰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1조4766억원)는 -4.39%였지만, 기초지수가 같은 환노출형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는 -9.37%로 손실이 두 배를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39.0원에서 23일 1358.4원으로 약 5.6% 떨어진 탓이다. 엔화노출형 2종은 원·엔 환율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면서 평균 -13.53%로 가장 부진했다.

손실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에서 발을 뺐다. 연초부터 지난 22일까지 개인은 상위 10개 종목에서 약 890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들 종목 전체 순자산(약 5조원)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2438억원),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2288억원) 등 9개 종목이 채권형 ETF 개인 순매도 1~9위를 휩쓸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이들 종목 중 8개를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도 장기채를 외면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TBro)에 따르면 연초 이후 23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ETF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에 미국 장기채 ETF는 하나도 없었다. 대표 상품인 iShares 20+ Year Treasur

y Bond ETF(TLT)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 대신 만기 3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 ETF(SGOV)를 6억6390만달러어치 사들여 13위에 올랐다. 가격 변동 위험이 큰 장기채 대신 이지만 헹글 수 있는 초단기 상품을 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국채 20년물 입찰에서도 저조한 수요가 확인됐듯, 전방위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분위기 속에 당분간 미 국채 투자 수익률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70%가량 반영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져, 채권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의 양과 동시에 연준이 추가로 1차례가 아닌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허성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연말 이후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며 장기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면서도 “아작까지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미국의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장기금리 추가 상승 리스크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왼쪽부터) Billy Miller 시큐리티이즈 COO, 박재만 KB증권 AI·디지털본부 상무, Kyle Jenke 옵티미즘 파운데이션 COO 등이 지난 21일 국내 기관 토큰증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 기관 대상 토큰증권 사업 추진

시큐리티이즈·옵티미즘 3자 MOU

KB증권은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티이즈(Securitize), 이더리움 레이어 2네트워크 ‘OP 메인넷’을 운영하는 옵티미즘 파운데이션(Optimism Foundati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KB증권은 금융상품 인수·발행·판매 역량과 기관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상품 공급을 담당하고, 시큐리티이즈는 토큰

화 인프라, 옵티미즘 파운데이션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KB증권은 우선 기관 고객을 위한 토큰화 MMF와 KB자산운용의 대표 투자 전략을 담은 토큰화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국내 토큰증권 제도 정비에 맞춰 주식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회사채, 국고채 등으로 대상 자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KB증권은 시큐리티이즈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함께 토큰화한 기존 펀드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금융당국, 검사 중간발표 등 행정쇄신 예고

‘소비자보호’ 중심 개선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해 논란이 되는 일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의 예외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에 이메일·메신저 내용 등을 요구할 때는 임직원의 사생활 관련은 선별해 검사 관련만 제출하도록 관행을 고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행정쇄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공익적 필요’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외기준의 윤곽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예외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요구 절차 등 다른 문제적 검사 관행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가령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이메일 등을 요구할 때, 검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선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부의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제재 사전통지서 내용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쟁점과 제재 관련 정보가 담기도록 형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전통지서 내용이 압축적이어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이 함께 하는 금융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가 쇄신방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막바지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민연금 ‘1점’ 가점에 금융사 줄줄이 전주행

자산운용사 중심 거점 마련 움직임 실질적 업무기능 이전은 미지수

정부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주 이전을 결정했다. 올해 초 ‘지역 이전 자산운용사 인센티브’를 언급한 대통령 한마디에 KB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현지에 핵심 계열사를 냈다. 특히 위탁운용사 경쟁에서 단 1점의 가점이라도 확보하려는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전주 사무소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IBK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이시스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등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시픽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도 전주행에 나섰다. 국내 자산운용 선두를 다투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전주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전주 거점 구축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우리·KB 등 금융그룹들이 은행과 증권, 운용 계열사를 아우르는 전주 거점 마련에 나서면서 개별 자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라 자산운용사들의 전주 거점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운용사의 사무소 개설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전주 진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운용사들이 전주로 향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 업무거점을 둔 운용사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인프라와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거점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 가점 1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

금 위탁운용사 선정은 운용 성과와 운용 인력, 투자전략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만큼 경쟁사 간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1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규모를 고려하면 전주 거점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탁자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운용업계 최대 ‘돈 손’인 국민연금 추진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가점 1점도 기본 점수가 될 확률이 높다”며 “현재는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가점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인력과 업무기능을 전주로 옮기는 데는 여러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무소 개설이 곧바로 실질적인 업무 기능 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핵심 인력과 투자 의사결정 조직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역과 리서치 인력의 경우 기존 생활 기반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전주 근무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운용사는 전주에 사무실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본사 인력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100만원 이하 연 1%, 초과분 연 0.6%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맡긴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며 고객 혜택 확대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자 지급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 혜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달부터 나올 전

망이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단기간에 수조원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청약 기간 동안 증거금에 이자가 붙으면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코트라, 美 수출전략 ‘새판’… 품목·진출방식 다변화 논의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K-AI·소부장·소비재 등 전면

K-화장품 수출, 전년비 37% ↑
차별성 부각 현지화 지원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미국시장 수출 주력 품목과 진출 방식을 전면 재고한다. 이는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맞선 대응이다. 특히 전략을 새로 짜는 데 있어 품목 등의 ‘다변화’ 추진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강경성 사장 주재로 로스앤젤레스에서 ‘2026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북미시장 내 K-AI(인공지능) 생태계 확산을 비롯해 글로벌 제조사 공급망 재편, 뷰티·푸드·콘텐츠로 대표되는 K-컬처 붐 확산을 도모한다. 변화 속 수출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회의에는 미국·캐나다 지역 10개 무역관장이 참석해 통상환경 변화와 기회요인 등을 살폈다. 북미 수출투자 분야 및 방식 다변화, 질적 성장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세 변동성에 따른 기업대응 지원, 대미투자 이행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사장은 이른바 ‘K-마루’ 사업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6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코트라

관련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LA 무역관 상황도 점검했다. K-마루는 한국의 ‘K’와 한옥 바닥의 순우리말인 ‘마루’를 결합한 명칭으로,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역량을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이다.

현지에선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망·냉각장치 등 기반시설 수요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급증했던 대미 전력기기 수출은 올해도 8월 누계기준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한 28억 달러, 반도체 수출은 292%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변압기·케이블·전력저장장치·

냉각설비가 산업 AI 확산 관련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우려 대상국 전력설비의 미국 내 구매·설치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핵심광물, 방산, 드론 등에 이어 전력 기자재까지 공급망 보호 조치에 나선 것.

코트라는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 ‘한-미 피지컬 AI 수퍼커넥트’ 전시상담회·포럼을 개최해 협력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등 빅테크 포함 미국 측 150여 개사가 참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달라스에 미국 전력

기자재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관장 등은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미국계 글로벌기업의 제조 공급망 재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조·ICT 역량을 두루 갖춘 ‘K-소부장’ 기업을 찾는 미국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했다. 미래모빌리티·조선·방산·반도체·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R&D 협력과 북미 공급망에 신규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분야별 기회 포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 수요에 맞춰 기술 실증, 공동 개발, 솔루션 도

입 등 협력 형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K-화장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화장품의 최대 수입처는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다. 8월까지 대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LA와 뉴욕 무역관 등은 미국 내 K뷰티 성공 요인으로 차별화 및 현지화 전략을 꼽았다. 색조가 아닌 스킨케어 시장 창출, 다양하고 혁신적인 천연원료, 세련되고 유익한 SNS 마케팅이 K뷰티만의 차별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이 같은 K-소비재 차별성을 부각하고 북미 유통망의 수요에 맞춘 현지화 지원을 늘려 갈 계획이다. 미국 내 대표 유통망별 필요 인증, 물류, 최소주문량, 입점요건 충족을 지원하고 우리 유통망 및 역직구 플랫폼과 K-소비재 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도 확충한다. 아울러, 미국 발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세환급, 원산지규정 활용 등 실무 대응을 지원한다.

강 사장은 “미중 패권 경쟁, 관세, 중동 전쟁에서 보듯 미국은 통상질서 재편의 시작점”이라며 “미국 내 시장 변화, 특히 수요 증가 분야와 함께 불확실성 속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aT, 모스크바서 ‘K-과일·디저트’ 선포

‘제2세대 K-푸드’ 육성 본격화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00여건 1대1 바이어 상담 진행

‘제2세대 K-푸드’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선과일과 냉동베이커리 등이 유망 차세대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프랑스에 이어 이달 러시아에서 이른바 ‘넥스트 K-푸드’를 선보였다.

aT는 9월 15~18일 기간 2026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K-신선과일 및 K-냉동베이커리(디저트)를 주제로 넥스트 K-푸드 특별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정부와 aT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넥스트 K-푸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넥



2026 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설치된 ‘넥스트 K-푸드 특별관’.

/aT

스트 K-푸드 프로젝트 선정기업들과 함께 한국산 사인머스켓·키위·감귤류 등 신선과일과 감자빵을 비롯한 냉동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다.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권역 등 30개국 바이어가 특별관을 찾았다.

특별관에서는 해동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과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마련했다. 박람회 기간 중 100여 건의 1대1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또 KOR숍, 레드드레곤 등 모스크바 소재 주요 유통업체와 입점 협

의도 실시했다. 러시아 시장에는 최근 다양한 한국식품 유통채널과 라면카페, 디저트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다.

현지 프리미엄 유통업체의 바이어로만 써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과 냉동식품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에서 선호될 만한 프리미엄 과일들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K-냉동베이커리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T는 박람회 기간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600여 건을 통해 현지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모스크바지사가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관계자 발굴에 나선다. 이어 올해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와 연계해 실제 수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기한 aT 수출식품이사는 “러시아는 프리미엄 농식품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K-푸드의 수출영토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 단속

주요 항만시설 내 현수막 통해 홍보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 단속에 나섰다. 특히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활동을 개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공사는 무단 드론비행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 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었고 드론 촬영 및 레저활동도 증가했다. 이에 항만 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이 추진됐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촬영 등이 제한되는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상여 출현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에 제한이 없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가보안시설로서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시민들께 협조를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노후연안선박 교체비용 지원

건조비용 30~60% 펀드 지원

해양수산부가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 가격에 따라 건조 비용의 30~60%를 펀드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비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 자부담으로 마련한다.

선사는 건조한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 동안 건조 비용을 상환하게 된다.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종 소유권은 선사에 이전된다.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펀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원 이하인 경우 선가의 60%, 60억원~120억원의 경우 50%, 120억원을 초과하면 30%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선가 150억원 이하 선박은 60%, 150억원 초과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의 지원을 받은 ‘실버클라우드호’

/해수부

300억원 이하 선박은 50%, 300억원 초과 선박은 30%를 지원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희망하는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의 경영여건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선정한다.

김해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오래된 연안 선박의 교체를 지원해 연안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현대화 펀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라운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아구아 해장국

예매하기

타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9조弗 시장 잡는다… 경북도, 식품한류산업 3대 방향 설정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위해
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
식품기업 성장, 플랫폼 육성 추진

경북도가 지난 23일 식품한류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은 지난해 9조2861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K-푸드 수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은 농·임·축·수산물 생산에서 제조·가공, 유통·수출, 외식, 관광, 축제, 문화콘텐츠까지 가치사슬이 넓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다.

특히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 생산기반과 다양한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 푸드테크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식품산업을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는 식품한류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K-푸드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식품한류 플랫폼 육성을 설정했다.



지난 5월 19일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위한 만찬 메뉴.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가 오른다.

/뉴시스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선 포항의 식품로봇, 구미의 스마트제조,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과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역량을 연계해 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지역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 10일에는 경북도와 안동시, KAIST가 ‘정밀발

효 기반한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6일에는 구미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착공됐으며 17일에는 포항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준공됐다.

‘K-푸드 기업 성장지화’를 위해선 우수한 원료를 활용하는 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인재·판로·수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 7월 경북도·구미시·오투기라면 간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업무협약이 체결돼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도는 기업지원 기관의 창업·투자·판로 기능과 대학의 연구개발·기술이전·인재양성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글로벌 식품한류 플랫폼 육성’은 경북의 음식과 식재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상품·외식·체험·관광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음식다미방·수운잡방·시의전서 등 경북이 보유한 전통 식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대표 음식과 전통시장, 축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K-미시벨트’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3대 방향을 더욱 굳히고자 식품한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글로벌 외빈 초청 미식행사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AI 교통체계 확대 시행

부산시가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한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인공지능(AI) 교통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신호 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운행·사고 정보를 받아 부산항 등 통행이 많은 구간의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보 적용 대상은 교차로 침수 감지, 신호 정보 개방, 실시간 신호 제어, 스마트 감응 신호, 위험물 운송차량 교통 정보 연계 등 지능형 교통 체계(ITS) 서비스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주시

관광택시 타면 상품권 증정

영주시가 10월 가을축제 기간 ‘영주 반평 관광택시’를 이용해 축제장을 찾는 관외 관광객에게 최대 2만 원 상당의 영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10월 3~4일 열리는 무섬와나무다리축제와 3~11일 풍기인삼축제다.

관광택시 이용객 가운데 1~2명 탑승 시 1만 원, 3~4명은 2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에게 받은 교환증을 축제장 지정 장소에 제시하면 되며, 상품권은 축제장과 영주시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교육청

일반고 찾아가 맞춤 진학지원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일반고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지원 프로그램 ‘우리 학교 진학 솔루션’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대입을 연계한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고, 학교별 진학지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창원시

매월 22일 ‘10분 소등’ 정례화

경남 창원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소등행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지난 22일 밤 9시부터 시청사를 비롯한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첫 정례 소등행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구의 날(4월22일)과 에너지의 날(8월22일) 등 특정 환경기념일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던 소등행사를 매월 22일로 정례화한 것이다.

이날 밤 9시가 되자 창원시청 본관을 비롯해 5개 구청과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실내·외 조명, 경관조명이 10분간 꺼졌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추석 연휴인 26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강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부강이’ 보러 추석 연휴간 32만명 몰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산시설공단, 비상근무 펼쳐
추석 이후 외해로 이동 계획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부강이’로 불리고 있는 상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26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강이 관람 인파는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몰려 북적였다고 시설공단은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10만1000명(주간 9만3000명, 야간 8000명), 25일 13만6000명(주간 10만명, 야간 3만6000명)이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찾아 추석 연휴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32만명에 달했다.

부강이는 지난 18일 처음 발견된 뒤 계속 수로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다가 추석 연휴 가족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

부산시·부산시설공단·동구청·경찰 등 하루 50명 안팎의 인원을 배치해 친수공원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비상근무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물관리원 등 관계기관은 상어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그물을 제작해 외해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자 감각 깨우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

의령군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의령군민공원과 솔바위 일원에서 ‘제5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부자의 감각’이다.

올해축제는안목·향기·미식·경청·실천·통찰 등 6가지 감각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군은 아이부터 부모, 조부모까지 함께 즐기는 가족형 축제로 행사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해 제4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에는 4일간 34만여 명이 찾았고, 약 163억원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축제 주요 공간은 9개 존으로 구성된 ‘부자1번지 주제관’이다. 부자 돌잡이, 리치리치 진품명품, 리치리치 리듬게임, 리치리치 기부게임, 부자의 맹세 등 전시와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를 활용한 ‘AI 리치 컨디션’도 운영한다. 관람객의 얼굴을 분석해 ‘오늘의 부자 감각’을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과 미션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족 단위 참여 행사로는 리치명랑운동회, 리치패밀리 올림픽, 리치오락실이 준비된다. 어린이를 위한 리치 키자니아와 리치리치코드대회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경남 지자체,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온기’

사천·남해·하동, 지역화폐 확대

경남 사천시를 비롯한 남해군과 하동군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사천시는 9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평소 월 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개인 구매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율을 유지했다.

남해군도 9월 남해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는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지류 상품권은 2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상품권 결제액의 3%를 돌려주는 캐시백도 시행했다.

하동군은 9월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했다. 지난 1일 발행한 30

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자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14일부터 18일까지 추가 판매했다.

이들 지자체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마련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난 만큼 실제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도 관심사다.

다만 상품권 가맹 여부와 결제수단에 따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이 다소 어려운 전통시장 노점 등 일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남해군은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소규모로 발행되는 지류형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충남도, 中·아세안 시장서 75만弗 수출협약

‘제23회 中·아세안 엑스포’ 참가

충남도가 중국 남부와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서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7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 2026)’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2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찾은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전시구역 내 54㎡ 규모의 독립

충남관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 6개사와 함께 홍삼 제품, 화장품,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전시·홍보했다.

특히 참가기업별 전담 통역원을 배치해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고, 제품 설명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박람회 기간 총 117건,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3건, 7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중국을 순방 중이던 구본영 정무부지사가 지난 18일 충남관을 찾아 참가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쿠팡, 공정거래 분쟁조정 급증 공정위 등 당국 갈등 ‘첩첩산중’

지난 8월까지 분쟁조정 접수 438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배상 거부
공정위 현장조사 법적 공방 이어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둘러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잇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면서 규제당국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 본법상 적용 제외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조사 절

차에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쿠팡 관련 공정거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35건에서 올해 8월까지 438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쿠팡은 2020년 이후 7년 연속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 접수율의 19.4%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공개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 기록에 따르면 쿠팡은 심의 과정에서 직매입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해 상품매입 원가와 배송·보관 비용 등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위반 정도도 ‘약한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이 인증 서명키와 접근권한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16개 IP에서 배

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4800만회 접근이 이뤄졌는데도 6개월 이상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청인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지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약 1조6850억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한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2일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이 미국 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명’으로 축소했다며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업계 1위 기업이라면 그 영향력에 걸맞게 소비자와 거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반복되는 분쟁과 조사 불응·조정 불응을 경위를 따져 물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6일까지 강남점 센트럴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기간한정 JUMP SHOP in SEOUL 제3탄’을 운영한다.

/신세계

신세계百 “점프샵 놀러오세요”

슈에이샤 공인 오피셜 라이선스 매장
원피스 등 원작 일러스트 굿즈 선보

신세계백화점이 일본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점프’의 슈에이샤 공인 오피셜 라이선스 매장 ‘점프샵(JUMP SHOP)’을 단독으로 유치해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6일까지 강남점 센트럴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기간한정 JUMP SHOP in SEOUL 제3탄’을 운영한다.

‘점프샵’은 슈에이샤(集英社)가 공인한 ‘주간 소년 점프’, ‘점프+’, ‘점프스퀘어’ 등의 오피셜 라이선스 매장으로, 원작자가 직접 그린 만화 장면과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한 원작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정규 매장과 팝업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일본 슈에이샤와 베네리크, 한국 서울미디어코믹스가 참가

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원피스’, ‘사카모토 데이즈’, ‘카구라바치’, ‘마남이치’ 등 만화의 원작 일러스트를 활용한 굿즈를 선보인다. 캐릭터 스티커, 랜덤 아크릴 스탠드·피규어, 카드 컬렉션, 파우치·에코백, 캔뱃지·키링 등으로 구성했으며 2026년 신상품도 포함된다.

매장 옆 디지털 사이니지에서는 만화 주인공들의 모습을 선보이며, 대표 캐릭터 비주얼을 활용한 대형 스탠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매장 입장 고객에게는 작품별 캐릭터가 담긴 ‘작품 엽서’를 증정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1인 1매 랜덤으로 제공한다. 특전은 한정 수량으로 운영한다. 고객들은 현장 키오스크 예약을 통해 점프샵 팝업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백화점 잠실점

‘키네틱 그라운드’ 1주년

내달 11일까지 고객 프로모션

키네틱 그라운드가 10월 11일까지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2층에 위치한 K-패션 전문관으로 이번 프로모션은 개점 1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열린다.

먼저 키네틱 그라운드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아이스크림 ‘찰랑아이스 in 우주떡집’을 선착순 2000개 한정으로 증정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을 선착순 제공한다. 대표 사은품으로는 ‘바쿠 보울라백’, ‘테토 페이스타일 세트’ 등이 있다.

잠실점 키네틱 그라운드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선보인 첫 번째 매장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지난해 9월 26일 약 5000㎡(약 150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총 19개의 K-패션 및 IP 콘텐츠 전문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본점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진 K-패션 브랜드 발굴에 집중했다면, 잠실점은 롯데타운 잠실의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대형 IP·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키네틱 그라운드 내 ‘팝업 스테이지’에서는 아이돌부터 캐릭터 IP, 스포츠, 영화 콘텐츠 등 지난 1년간 약 50회의 팝업을 운영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짱구 베이커리 카페’와 국내 2호점인 ‘리타쿠마 스미코구라시 플러스 바이 산엑스’ 등이 입점해 있다.

/김서현 기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잠실점 ‘파일럿 키친’에서 ‘보일링 씨푸드’를 시식하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롯데마트, 텔리 코너 ‘파일럿키친’ 운영

고객 의견 반영… 품질 리스크 최소화

롯데마트가 고객이 출시 전 상품을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방식을 시도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제타플러스 잠실점 텔리 코너에서 ‘파일럿 키친(Pilot Kitchen)’을 운영을 시작했다. 파일럿 키친은 최신 식품 트렌드와 시즌 원재료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한 뒤 출시 전 단계의 상품을 고객에게 먼저 선보이고 현장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 공간이다. 출시 전부터 고객 의견을 확인해 상품 품질과 고객 기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롯데마트는 매장 내 QR코드를 상시 배치해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맛본 후 맛과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고객 피드백은 월 1

회 취합해 향후 상품 출시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파일럿 키친에서는 메뉴별로 약 3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하며 고객 반응과 판매 가능성을 검증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상품성이 확인된 메뉴는 향후 롯데마트의 시그니처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일럿 키친의 메뉴 개발은 롯데마트의 상품 R&D 조직인 푸드이노베이션센터(FIC·Food Innovation Center)가 맡았다.

첫 번째 테스트 상품으로는 최근 외식 및 SNS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보일링 씨푸드’를 선정했다. 보일링 씨푸드는 해산물과 소시지, 감자 등을 특제 소스와 함께 조리하는 메뉴로, 고객 취향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랍스터를 추가한 ‘보일링 랍스터’와 랍스터·대게를 함께 구성한 ‘보일링 파타렉’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오비맥주, 제로슈거 소주 ‘찰랑’ 론칭 캠페인

옥외광고·브랜드 사이트 운영

오비맥주가 제로슈거 소주 ‘찰랑’을 출시하고 서울·수도권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론칭 캠페인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28일 ‘찰랑’을 공식 출시한다. 찰랑은 제주 동부의 화산 암반수와 용암해수소금을 사용한 알코올 도수 15도의 제로슈거 소주다. 인위적인 알코올 향과 단맛을 줄이고 맛과 향의 균형을 고려해 설계했다.

출시 초기에는 서울·수도권 일부 식당과 주점, 제주 일부 매장에서 제품을 선보인다. 10월 초부터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식사와 모임을 즐기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제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캠페인 비주얼을 활용한 옥외광고도 진행한다. 맑은 물과 화산암을 모티프로 한 수면 이미지와 ‘화산송이가 거른 맑은 물로 찰랑이는 부드러움’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온라인에서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브랜드 사이트를 운영한다. 브랜드가 탄생한 배경과 스토리 등을 콘텐츠로 소개하고,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찰랑을 판매하는 제휴 매장의 위치와 운영 정보도 안내한다.



소주 브랜드 ‘찰랑’

/오비맥주

식당과의 협업도 진행한다. 오비맥주는 10월 중순부터 석암생소금구이 용산점을 찰랑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한다. 매장에 찰랑의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하고 메뉴와 연계해 제품과 어울리는 음식도 제안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은 찰랑 출시와 함께 제품을 선보이는 첫 판매 매장이자다.

찰랑은 제주의 잔잔한 물결과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다. 제품명에 맑은 물이 부드럽게 일렁이는 모습을 담았으며, 병 패키지는 푸른 빛 색상과 물결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찰랑의 맛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사와 모임의 순간 속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찰랑이 음식과 대화,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일상 속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라면 진열 넘어 조리까지… ‘K-푸드 체험관’ 된 공항 라운지

농심, 라운지에 21종 라면 공급
할랄·비건 제품까지 함께 배치
풀무원, 시판 제품 활용 메뉴 선택

인천국제공항 연간 여객 수가 74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공항 라운지가 국내 식품업계의 핵심 ‘글로벌 K푸드 쇼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공항 라운지 마케팅이 컵라면이나 완제품을 비치해 브랜드를 노출하는 단순 진열 방식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거나 시판 제품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맛보는 등 참여형 마케팅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서 펼쳐지는 라면 대전

대표 라면업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심은 23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의 ‘라면 라이브러리’에 자사



이용객들이 농심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라면 라이브러리 즉석조리기를 이용하고 있다. /농심

대표 라면 21종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신라면·신라면 블랙·신라면 톰비를 비롯해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등 메가 히트 상품이 총출동했다. 특히 다양한 국적과 식문화를 가진 글로벌 이용객을 고려해 할랄 인증 제품인 ‘신라면 할랄’과 비건 제품 ‘순라면’을 함께 비치했다.

이곳을 찾은 이용객은 자판기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뒤 즉석조리기를 활용해 직접 라면을 끓이고, 김치·대파·콩나물 등의 토핑을 취향껏 추가할 수 있다. 선택부터 조리, 시식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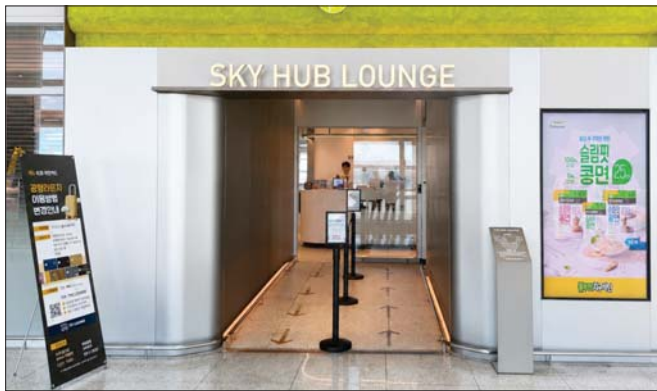
해당 공간은 올해 1월 제2여객터미널 프레스티지 라운지 재단장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초기에는 오투기가 진라면 등 14종을 공급하며 포문을 열었고, 라운지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농심 제품까지 추가 입점하면서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들이 한자리에서 글로벌 소비자를 만나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라이브 누들·피자’ 활용법 제시

완제품 라면뿐만 아니라 시판 제품을 요리로 승화시킨 ‘메뉴 마케팅’도 활발하다.

농심은 앞서 7~8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스카이하브라운지 2곳에서 ‘배홍동막국수’를 현장 조리 메뉴로 선보였다. 직원이 면을 즉석에서 삶아 제공하고 이용객이 토핑을 더하는 방식으로 B2C 소매 제품의 뛰어난 활용성을 증명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스카이하브라운지에서 슬림핏 콩면을 활용한 국수를 선보였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식음료 서비스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 역시 자사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을 앞세워 공항 접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6~8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탑승동점 및 제2터미널 스카이하브라운지에서 ‘슬림핏 콩면’을 활용한 콩국수·열무국수·김치말이국수를 선보인데 이어, 이달 8일 개장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스카이하브라운지 프리미엄’에서는 체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김포공항 라운지 퍼블릭존에서는 두유면 라이브 누들과 오븐에서 구운 ‘노엣지 피자’를 제공하며, 비즈니스존에서는 전문 셰프가 해물라면·함박스테이크·불고기 비빔밥·미역국 반상 등을 즉석 조리해 제공한다. 소매 유통 제품이 고급 라운지

요리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면세점·기내식 넘어서 ‘체험 채널’

식품업계가 공항 라운지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앤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항 여객 수가 자리 잡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스카이하브라운지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컨세션 사업 매출 역시 21.8% 늘었다.

일반 유통 매장보다 달리 공항 라운지는 소비자가 최소 30분에서 수 시간 동안 머물며 음식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마지막 K푸드 경험’의 기회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공항 마케팅이 면세점 입점이나 기내식 공급 등 단편적인 판매에 그쳤다면, 이제는 라운지를 활용해 소비자가 맛과 조리법을 직접 체험하는 ‘K푸드 체험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진출 전 글로벌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공항 라운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현대홈쇼핑, 홋카이도와 첫 직거래 나선다

경제산업국·경제연합회와 상품 발굴
오는 11월 낫또·슈크림빵 판매 시작

현대홈쇼핑이 일본 홋카이도와 손잡고 해외 특산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현지 상품 발굴과 국내 판매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대홈쇼핑은 일본 홋카이도와 현지 상품 발굴 및 국내 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이 상품 소싱을 위해 해외 특정 지역과 직접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협력에 앞서 양측은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만나 향후 상품 소싱 과정과 판매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홋카이도 경제연합회 후지이 유타카(藤井 裕) 회장,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홋카이도 경제산업국 우라타 히데유키(浦田 秀行) 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홋카이도 지역 상품과 현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현대홈쇼핑 한광영 대표(사진 맨 왼쪽)와 홋카이도 경제연합회 후지이 유타카 회장(사진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홋카이도 경제산업국 우라타 히데유키 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대홈쇼핑의 유통 및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국내 고객에게 해외 특산품을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홋카이도 경제산업국과 경제연합회는 현지 농·축·수산 특산물을 발굴하고, 현대홈쇼핑은 TV 라이브 방송과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을 활용해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

이다.

양측은 우선 오는 11월 현지 인기 식품인 낫또와 슈크림빵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식품 판매뿐 아니라 홋카이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 기획과 문화행사 공동 주최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유레스코정’,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1위

동국제약, 출시 후 시장점유율 76.3%

동국제약의 전립선비대증 치료 개량신약 ‘유레스코정’이 출시 직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처방 확대에 이어 중남미 지역에서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성과를 냈다.

동국제약은 올해 6월 국내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시장에서 유레스코정이 76.3%의 시장점유율과 함께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유레스코정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질한 진행을 억제하는 ‘두타스테리드’ 성분과 하부요로증상을 개선하는 ‘타다라필’을 하나의 정제에 처방한 복합제다. 두 성분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여러 증상을 빠르게 완화해 전립선비대증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약뇨, 잔뇨감 등 소변을 볼 때 불편하게 느끼는 배뇨 증상과 빈뇨, 야간뇨 등 소변을 참기 힘든 저장 증상에 효과를 찾았다.

동국제약은 동일 성분을 조합한 공동 개발 품목들이 비슷한 시기 대거 출시되

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레스코정이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스페인 제약사 파에스 파르마와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주요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전립선비대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별 특성에 맞는 복합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유레스코정은 임상적 유용성과 복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 치료 옵션”이라며 “국내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여성·장 건강 한번에 챙기는 ‘엘레나 듀얼’

유한양행, 질 내 유익균 증식 도와

유한양행이 여성 질 건강과 온 가족 장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하는 고급 프로바이오틱스 ‘엘레나 듀얼’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러 영양제를 챙겨 먹는 번거로운 대신 단 한 캡슐로 현대인 건강을 복합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엘레나 듀얼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질 건강 기능성을 입증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와 세계적으로 연구된 장 유익균 ‘BB-12 프로바이오틱스’를 복합 처방했다.

유렉스 균주는 여성 질 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핵심 원료다. 함께 배합한 BB-12 프로바이오틱스는 우수한 생존력을 갖춰 소화기에서 장까지 도달하며 배변 활동 등을 개선해 준다.

유한양행은 여성 전용 브랜드 엘레나를



엘레나 듀얼

/유한양행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인 올인원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여성 질 건강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엘레나의 브랜드 파워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증된 두 가지 프리미엄 균주를 한 데 담아 제품력을 극대화했다”며 “복용 단계는 줄이고 확실한 효능을 원하는 현대인 수요를 충족하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S홈쇼핑, 익산서 ‘푸드페스타’ 내달 개최

요리·창업·가족 체험 한자리에

NS홈쇼핑이 요리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지역 식품기업과 청년창업,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식품문화축제를 연다.

NS홈쇼핑은 다음달 16~17일 전북 익산 하림 파스트키친에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NS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19년간 이어온 요리경연대회를 기반으로 익산시와 함께 운영해 온 행사다. 지난해에는 약 2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요리경연에는 기존 일반부문과 함께 가족이 한 팀으로 참가하는 가족부문이 신설된다. 일반부문 본

선에서는 맛과 편의성, 상업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이 경쟁한다.

지역 식품산업과 청년창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청년창업 페스타에서는 식품 분야 청년 창업기업과 신상품을 선보인다. 익산의 대표릴 맛집과 식품기업도 참여해 지역 먹거리를 소개한다.

하림 파스트키친에서는 식품 생산시설 견학과 함께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오드그로서 등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하림그룹 프레스마켓과 현장 홈쇼핑, 시식판매 행사도 진행된다. 이밖에 쿠팡클래스, ‘도전! 푸드 골든벨’, 문화공연, 버스킹, 쿡킹쇼 등이 열린다.

/신원선 기자



#5 이승연 님의 이야기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귀 기울여 듣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의 속도를 맞춰갑니다

AI기술을 통해
간단한 상담은 빠르게 해결하고

상담사는 고객의 감정에 더 공감하고
쉽고 천천히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전 산업군 1위’
유플러스가 진심 어린 상담으로
가장 감동적인 고객센터를 만들어갑니다

고객 경험을 심플하게

Simply. U+



2026년 KSQI 콜센터부문 전 산업군 1위,
통신업계 유일 2년 연속 고객감동콜센터 (KMAC 선정)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위해 전국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유심 업데이트 무료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LG 유플러스
백유진 상담사

이 광고는 실제 유플러스 상담사의 모습을 활용해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행 별별하모니아·다문화합창단 특별 협연

우리는행이 후원하는 ‘우리는행별별하모니아’와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한 특별 공연을 선보였다. 우리는행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우리는행 별별하모니아’ 및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2차 콘서트’에 참여해 협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우리는행



대동, 전남생명과학고와 미래농업 인재 육성

대동이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왼쪽 3번째부터)대동 이광욱 농업AX추진TF 부문장,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김일식 교장 등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코웨이, 장난감 업사이클링으로 자원순환 실천

코웨이가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장난감을 소독·분해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한 코웨이 임직원 봉사단이 기념촬영을 하며 웃고 있다. /코웨이



대웅제약, ‘손목닥터9988’ 서비스 발전 맞손

대웅제약이 일상 속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헬스케어 확장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청서문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손목닥터9988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손목닥터 9988 서비스 발전 협약식’에서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웅제약

NH농협은행

여행 특화 ‘올원트래블’ 오픈

NH농협은행은 여행 준비에 필요한 콘텐츠와 금융 혜택을 NH올원뱅크에 모은 특화서비스 ‘올원트래블’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올원트래블은 국내외 해외 여행별 맞춤 금융 서비스와 최신 여행 콘텐츠를 통합해 제공한다. 고객들은 24종 통화의 환율 조회와 환전을 비롯해 ‘NH트래블리 통장·체크카드’와 연계한 외화 입출금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행객에게는 미술관·유튜브 맛집과 테마별 여행지 추천, 나만의 여행 플랜 수립 기능을 제공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태원 “한·멕시코, 미래산업·문화로 협력 확대”

〈대한상의 회장〉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 한국 기술력·멕시코 제조력 결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기술·투자 역량과 멕시코의 제조 기반·인재를 결합해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에너지, 문화 분야로 넓혀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에서 “멕시코는 중남미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중요한 경제 거점”이라며 “한국의 기술과 투자 역량, 멕시코의 탄탄한 제조 기반과 우수한 인재가 만나면 양국이 만들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협력할 분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신산업·에너지, 문화·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첨단산업과 공급망에서 새로운 기회



를 만들고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며 문화와 콘텐츠를 통해 서로의 시장을 더 가까이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 분야별 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양국 경제인 간 신뢰의 중요성도 짚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서로를 알고, 신뢰하고, 오래 기억할 때 새로운 협력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 기업조정위원회(CCE)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 회장과 주요 기업·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멕시코 측에서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경제계 인사 150여명이 자리했다.

LGU+, 화담숲에 자생식물 식재

우리 고유 식물 34종 포함 120종 IoT 센서 활용해 토양 모니터링

LG유플러스가 국내 자생식물 보호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LG상록재단과 자연생태공원 화담숲에 약 120종의 식물을 식재한 생물종다양성정원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2013년 경기도 광주에 문을 열었다. LG유플러스는 화담숲의 생태 보전 활동을 후원하고, 고객과 시민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경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생물종다양성정원(가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체험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식물 약 120여종, 1만 본을 식재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 식물 34종이 포함됐다. 제비동자꽃과 흑산도비비추를 비롯해 금강초롱꽃, 섬백리향, 섬꼬리 풀, 울릉국화, 한라개승마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특산식물 등이다.

공원 조성 방식은 기존 화담숲 지형과 배경숲을 활용해 식재한 식물이 주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제비동자꽃. /LG유플러스

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특정 식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지 않고, 일반 관람객이 화담숲 관람 동선에서 우리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전국 맛축제 20개 ‘K-푸드’로 뭉친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내달 ‘K-푸드 페스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오는 10~11월 기간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어 온 주요 식품축제 20개를 하나의 큰 덩이로 아우르는 미식축제다.

이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식품 행사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 홍보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다.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축제 돌입에 앞서 9월 28~30일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홍보 데스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곳에서 홍보자료(리플릿)를 배포하는 등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윤혜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박정현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김소연 ▲수원고용센터소장 지영철 ▲인천북부지청장 이재희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 박수연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김상현

부음 ▲강북남 씨 별세, 정기호 씨 배우자상, 정정수·정정옥(LG그룹 부사장) 모친상, 김선경·서애리 씨 시모상, 정용지·정세훈·정세림·정세준 씨 조모상=27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6986-4440 ▲김남선(약사)씨 별세, 홍재용(신경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홍수용(머니투데이방송 부국장)·홍혜경(세종대

교수)씨 모친상, 권희희(송실대 교수)씨 장모상, 조현애·김희영씨 시모상=2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9일 오전. 051-610-9009 ▲유병일씨 별세, 유수용(용인시 세입관리팀장)씨 부친상=26일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601호, 발인 28일 오전 5시. 032-460-3444 ▲김수태(향년 85세)씨 별세, 송한열(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책임 엔지니어)·한호(서천교육지원청 경리팀장)·한민(화성서부경찰서 수사팀장)·한진(MBN 감사팀 부장)씨 모친상=26일, 서해병원 장례식장 특1빈소, 발인 28일 오전 10시, 장지 군산승화원 판교영명각. 041-953-4440 ▲노두이씨 별세, 명창환(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씨 장모상=27일, 순천성가를로병원장례식장 6호,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061-900-4444

멕시코 한류 박람회 참가해 홍보
에스파 포토존·스탬프 투어 등 마련

농심이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지 한류 박람회에서 신라면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며 판매망 확대에 나섰다. K-콘텐츠 인기를 K-푸드 수요로 연결해 현지 시장에서 신라면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지난 24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CIEC WTC)에서 열린 ‘2026K-EXPOMEXICO’에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포럼은 ‘한·멕시코,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양국 경제인들은 첨단산업·공급망, 신산업·에너지,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산업·공급망 세션에서는 북미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양국의 투자·공급망 협력 기회를 다뤘다. 신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AI) 역량과 멕시코 산업 기반을 연계한 소버린 AI와 AI 팩토리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문화창조산업 세션에서는 음악·영상·게임 콘텐츠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인재 발굴, 공동 제작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을 계기로 기업·기관 간 이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정원에는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적용됐다. 무선 솔루션인 ‘지중 토양성분 모니터링’ 센서와 ‘시설 붕괴감지’ IoT 센서를 통해 토양의 수분과 산성도, 시설물의 진동과 기온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토양과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앞으로 LG유플러스와 LG상록재단은 화담숲의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후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물종 다양성정원이 시민에게 우리 식물의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농심 조용철 대표가 2026 K-EXPO MEXICO 신라면 부스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심

농심, 신라면 앞세워 중남미 공략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B2C 전시와 공연, B2B 수출상담회 등을 아우르는 한류 박람회다. 국내 라면업체 가운데 농심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농심은 행사장에 신라면 부스를 마련하고 현지 소비자와 직접 만났다. 부스는 신라면 브랜드 세계관을 담은 ‘신버스(Shinverse)’를 콘셉트로 꾸몄으며, 멕시코에서 인기가 높은 K-POP을 활용해 브랜드 앰배서더 에스파(aespa) 포토존도 마련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라면과 신라면 톱배를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고, 한정판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www.newsis.com



뉴스یس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یس와 손을 잡고 뉴스یس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یس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یس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یس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یس!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스یس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믿고 샀는데 내 집이 아니라고요?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바로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든 부동산중개를 할 때 계약당일 및 잔금일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를 신뢰해 계약을 하는데, 종종 등기부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해 계약을 했는데도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시력’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공신력은 말 그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는 것이고, 공시력은 단지 현재의 외관상의 권리현황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위조된 문서에 의해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의 사유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외관상, 등기상의 명의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

우에는 단순히 명의자일 뿐인자와 거래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산거래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른바 ‘선의취득’으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를 하더라도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고, 공적장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두 개의 충돌하는 가치에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정책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는 ‘거래의 안전’을, 부동산에 관해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동산은 비교적 금액이 작는데 비해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또한 동산은 점유행위가 권리변동의 공식방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뤄진 동산거래를 진정한 소유자 보호라는 이유로 모두 무효로 되돌릴 경우, 거

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소유자가 아닌자가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될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에 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정한 소유자 보호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등기소에서 적절히 심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문서의 위조 등의 여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신속한 등기업무 처리가 필요한 등기소에서 이를 최종적,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기관의 심사권도 실질적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 심사권에 그친다.

이와 같이 등기부는 공신력을 가진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과거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살펴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성능 경쟁 가능한가... 독파모가 마주한 딜레마



기 자 수첩
조 민 선
(IT부)

“인공지능(AI)은 결국 돈입니다. 매년 수백 조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단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심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를 만나 들은 말이다.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성능의 95%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는 독파모의 목표과는 묘한 간극이 느껴진다.

숫자는 냉정한 현실을 입증한다. 올해 구글과 메타의 AI 투자 규모는 합산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발 주자인 엔스 로픽만 보더라도 7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내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SK그룹의 경우 연간 투자 규모가 50조원 안팎이다. 독파모 3차



/따능AI

전에 진출한 업스테이지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조원에 못 미친다.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자본력이 중요하다. 막대한 GPU·데이터센터·전력 등 연산 인프라가 필요하고, 학습 이후에도 추론 최적화 등을 반복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의 투자 격차를 숫자 차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독파모의 첫번째 딜레마는 성능이다. 국내 기업들이 과연 성능만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글로벌 벤치마크(AAII) 1위를 차지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도 해외 최상급 모델 성능의 약 75%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딜레마가 생긴다. 산업 특화 전략이 대기업에 더 유리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 LG·SK 등 대기업은 국내외 곳곳에 제조 인프라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산업 현장 데이터가 풍부하다. 게다가 AI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의 장벽은 더 높아진다. 결국 국내 최상위 AI 모델을 겨루는 자리에서 스타트업은 조연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글로벌 빅테크 AI 모델 성능의 95% 수준까지 구현한다는 목표와 산업 특화 전략이 양립할 수 있을까. 독파모는 3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에서 최종 두 팀을 가릴 예정이다. 성능 경쟁과 산업 특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msj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8일 (음 8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60년생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72년생 방랑한 생활 속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84년생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9년생 작은 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61년생 심하면 부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73년생 쉽게 인연이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85년생 본인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여 고쳐도록 하세요



50년생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실 틈 없이 바쁘지만 실 속은 없습니다. 74년생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86년생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51년생 고난 속에 희망은 가까워집니다. 63년생 역경을 잘 이겨내세요. 75년생 불안한 미래에 당당히 부딪혀 보세요. 87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이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52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64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세요. 76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고 마음을 태우지 마세요. 88년생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린다면 늦게 성취될 것입니다.



53년생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5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습니다. 77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89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54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년생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8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90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55년생 지금의 매대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67년생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79년생 과한 운동은 독이 됩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56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달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80년생 성군이 눈앞에 있습니다. 92년생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57년생 위아랫 사람이 화목 하지 못합니다. 69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81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58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70년생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됩니다. 82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게 됩니다. 94년생 남의 연쟁에 끼여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59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하세요. 71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83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95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김상회의四季

절기의 매직

8월 초순쯤에 입추(立秋)가 들면 이렇게 더운데 왜 입추라 하는 거지? 입추 이후로는 아침저녁으로 짧게라도 선뜻함이 느껴질 적이 있었으니 선조들은 가을의 시작이 서서히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양태되고 있었음을 안 것이다. 그리고 보름쯤이 지나면 더위가 그친다는 의미의 처서(處暑)가 들며 드디어 폭염과 열대야가 물러간다는 백로(白露)가 당당하게 도래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슬이 맺히는 날이라는 의미로 백로이니, 가을이 확연해지는 지점이다. 처서 무렵에는 각별히 코스모스가 만발해지더니 귀뚜라미 소리 또한 점점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백로 이후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과일엔 단맛이 깊어지게 된다고 한다. 백로 이후로는 가지 말래도 더위는 떠날 채비를 한다.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는 지구 안에서 풍광의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절기만큼의 정확한 바로미터를 필자는 알지 못한다. 역학적으로 절기를 시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과거 농경이 주요 산업이었던 전통사회 때 절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참고 변수였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사계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절기 때마다는 반드시 기원을 담은 소박한 제를 올린 것이다. 입춘 기도와 동지기도가 그 대표적 예이다. 즉, 입추가 되면 오행상 신월(申月)로서 금기(金氣)가 점차 왕하게 되므로 처서가 지나면 금의 기운이 맹위를 떨치며 이슬이 맺히는 백로에는 음기가 점차 짙어지며 열매가 익는다. 추분이 지나 찬 서리가 맺히는 한로가 되면 술월(戌月)인 음력 9월에 들면서 토 기운이 왕해진다. 그러면서 수기가 생기는 음력 10월에는 과실 속 씨앗이 물러지면서 열매가 낙하한다.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절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니 마치 절기마다 고유한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2호

일간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7	
						6
					8	
			9	2		3
5	9		1	3		4
3			4	8		
		9				
7						
	8	3		2		

문제풀이: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1	2	3	4	5	6	7	8	9
8	7	1	6	9	4	3	2	5	7	6
1	9	8	5	7	6	2	1			
9	1	6	9	8	7	2	4			
2	7	9	4	1	8	6	5			
6	8	1	2	6	9	9	1	7		
7	6	8	1	9	9	1	4	2		
9	4	9	8	1	2	1	7	6		
1	1	2	7	4	6	9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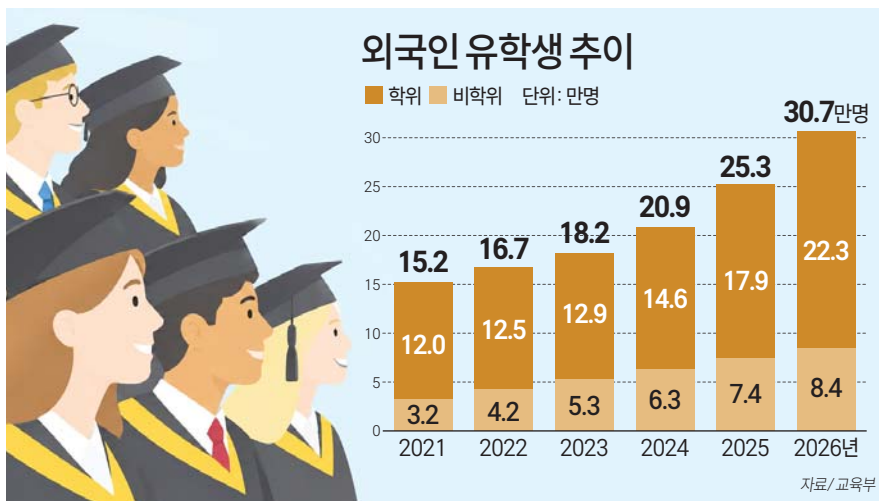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유치 넘어 취업·정착 길 열어야

올해 외국인 유학생 30만 7464명 학위 24.6%, 비학위 13.5% 증가 박사 졸업생 중 81.3% 완전 출국 정부, 지역산업 연계 정책 구체화 교육부,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확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국내 산업 인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나섰다. 아직 유학생이 실제 국내 산업 인력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아, 유치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결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만 4030명(21.3%) 증가한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다. 올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2만 3191명으로 전년보다 4만 4001명(24.6%) 증가했다. 비학위과정 유학생도 8만 4273명으로 13.5% 늘었다. 단기 연수 등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학생층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9만 68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7만 8890명(25.7%), 우즈베키스탄 2만 876명(6.8%), 네팔 2만 118명(6.5%), 몽골 1만 7189명(5.6%) 순이었다.

전공별 유학생 규모도 국내 산업 수요와 맞물려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신규 입학생은 11만 7333명으로 2019년보다 75% 증가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인력 수요와 맞닿은

전공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크게 늘었다. 임상병리·간호·돌봄 관련 분야는 2019년 대비 296%, 반도체 관련 분야는 138% 각각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가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주로 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2019~2025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 2107명(교환학생 제외)을 분석한 결과, 졸업 직후 출국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2만 2576명으로 취업률 34.3%에 그쳤다. 이 가운데 54%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었고, 이들 중 90%는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서 취업했다.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았다. 올해 3월 기준 졸업자 15만 2109명의 체류자격을 살펴본 결과, 완전 출국 비율은 박사 81.3%, 학사 71.8%, 석사 71.3%, 전문학사 26.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인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역 제조업 인력 확보를

위해 16개 전문대학을 '육성형 전문기술 학교'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을 선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까지 늘어나고 국내 산업 수요와 맞닿은 분야의 유입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뿐 아니라 학업 이후 국내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취업 지원과 함께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질적 관리 정책이 실제 취업과 정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유학생 30만 시대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특수교육 학생 느는데… 교사는 4663명 부족

학생 4명당 1명 배치 법정기준 미달 경기도 특수교사 부족 1685명 '최대' 중도퇴사자 862명… 정년퇴직자 3배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가르칠 교사는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특수교사 배치 정원은 법정 기준상 필요한 인원보다 4663명 부족해, 필요한 교사 5명 중 1명꼴로 채우지 못했다. 교원 부족 속에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특수교사도 800명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치 정원은 1만 8046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국적으로 2만 2709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배치 정원은

필요 인원의 약 79.5%에 그쳤다.

지역별 교사 부족 규모도 차이가 컸다. 경기도가 1685명으로 전국에서 부족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법정 배치기준인 4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부산·인천·제주 각각 4.5명, 대전이 4.4명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

교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을 채우기 전에 교단을 떠나는 특수교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를 웃돌았다.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와 별도의 자격과

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갖춘 뒤 교육청이 유아·초·중·고등 특수 분야별로 정한 선발 인원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는 구조다. 일반 교원과 자격·선발 체계가 구분돼 있어 학령 인구 감소로 일반 교원 수요가 줄더라도 이를 특수교사 부족분에 곧바로 충원하기는 어렵다.

지역에 따라 신규 교사를 확보할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내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정규교사뿐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대신할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이천시,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18만㎡ 규모… 반도체 소부장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천시와 손잡고 총 18만㎡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GH는 지난 23일 본사에서 이천시와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만㎡ 규모의 3개 사업지구를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GH와 이천시는 반도체 앵커기업 주변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을 집적화한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호원읍·율면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천시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6만㎡로 제한돼 대규모 계획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성수석 경기 이천시장(사진 왼쪽)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천시

규제 개선 건의로 지난해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최대 30만㎡까지 연접개발이 가능해졌다.

GH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입지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투자심의 등 내부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천(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연고 중도탈락 2012명… 의대 쏠림 여파

중도탈락자 중 64.5% '자연계' 의대진학 재도전·편입 움직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중 자연계열 비중이 인문계열의 약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재도전 움직임 등이 중도탈락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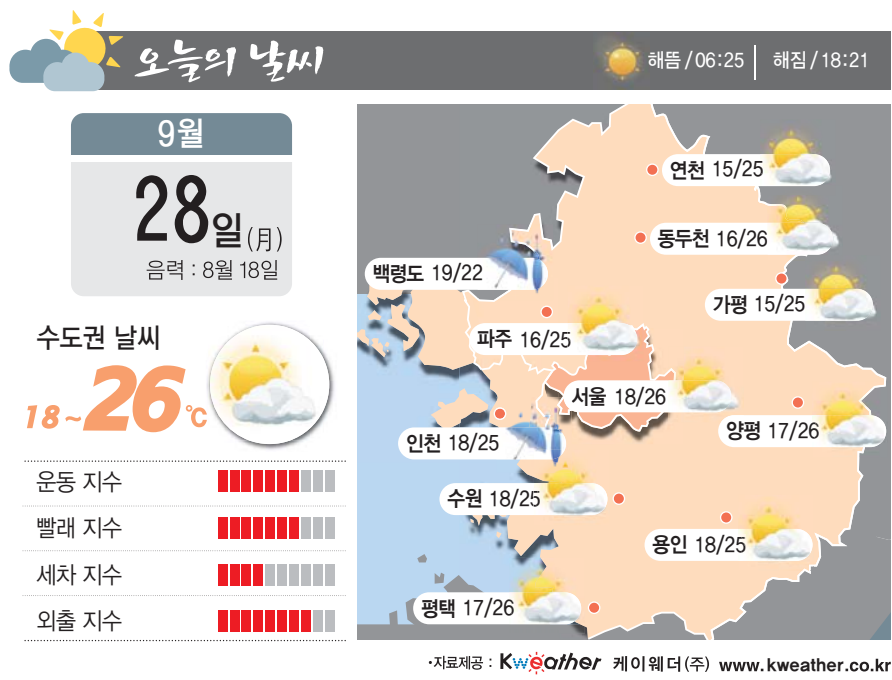
별 중도탈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모두 2012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297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인문계열은 654명(32.5%), 예체능계열은 61명(3.0%)이었다. 자연계열 중도탈락자가 인문계열의 약 2배에 달한 셈이다.

서연고의 중도탈락자는 최근 4년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2021년 1971명에서 2022년 2131명, 2023년 2126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496명까지 증가했다. 지

난해에는 2012명으로 전년보다 484명(19.4%) 감소했지만, 2022년 이후 4년 연속 2000명을 웃돌았다.

종로학원은 서울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 증가 배경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계열 재도전 움직임을 꼽았다. 최상위권 아공계 학과에 진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연고 재학 중에 있는 지방권 학생들의 재입학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 트럼프, '7일 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제안 거절 /사진 뉴시스
▲ 中 자이언트 판다, 미국 동물원으로…정상회담 사흘만

▲ 러 외무 "유럽, 우크라 평화협상 방해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러 매체 "李대통령, 젤렌스키에 살인자·배신자" 왜곡 보도

▲ 日 전 방위상 우크라 방문 조율…자위대 드론 도입 추진
▲ 가자지구 공습 이스라엘군, 하마스 정예부대 2명 제거



라면 조리까지
공항 라운지
K-푸드 쇼룸으로
L2

metro[®]

Life

최태원
한·멕시코
협력 확대
L4



“시민 일상서 알린 암 검진...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잡길”



새벽을 여는 사람들

국민건강보험 오인애 팀장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발견하면 상대생존율은 92%에 달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뒤 발견하면 27.8%까지 떨어진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건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인애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은 ‘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5년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9.5%로 가장 적었다. 이후 2021년 56.6%, 2022년 58.2%, 2023년 59.8%, 2024년 60.2%로 꾸준히 늘어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 팀장은 “암검진 수검률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다”며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검진 사각지대

수검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다.

연령별로 보면 2024년 기준 40대의 암검진 수검률은 7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80대 이상은 32.3%로 가장 낮았다. 고령층이 검진을 미루는 데에는 질병 발견에 대한 두려움과 거동 불편, 동행자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병원을 자주 찾는 만큼 별도의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검진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 팀장은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암을 알아서 무었하겠느냐’, ‘차리리 모르는게 낫다’, ‘자식한테 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며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검진을 통해 질병을 빨리 발견하면 치료에 드는 비용과 신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20·30대, 젊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 팀장은 20대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대상 연령은 2016년부터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젊은 여성층의 검진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검진 연령이 낮아진 배경에는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의 빠른 증가세가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40·5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6% 증가한 데 비해 20·30대 환자는 25% 늘었다.

오 팀장은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해 왔



암 전이 되기 전 발견시 생존율 92%
정기 건강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해

80대 검진 수검률 32%로 가장 낮아
빠른 발견이 비용·고통 줄일 수 있어

20·30대 자궁경부암 발병 증가세
젊은 연령층도 정기적 검진 받아야
발병 비중 높은 유방암도 검진 필수

우유팩·약봉투 활용해 암검진 홍보
야구장 초대형 스크린 활용하기도
암검진 제도, 더 친숙하게 인식되길



1 오인애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이 암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국가암검진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우유팩에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문구가 담겨 있다. /국민건강보험

다”며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젊은 연령층은 세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20·30대 여성들도 검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다. 오 팀장은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방 모형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모형을 만져보며 멍울이 잡히는 느낌이나 피부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 팀장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로만 듣다가 직접 체험해보니 검진의 필요성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방암은 40·50대 여성에서 발병 비중이 높은 만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40·50대는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 이때 암이 발생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방의 멍울이나 피부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

엇보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일상 속으로 들어간 암검진

오 팀장은 업무를 맡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암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오 팀장은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내 스크린을 통해 암검진의 중요성을 알렸고, 서울시약사회와도 협력해 약국 내 홍보 안내물을 설치했다”며 “특히 여약사들이 약국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홍보 접점을 더 넓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협업해 저지방 우유팩에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구를 넣고, 약 88만 가정에 검진 정보를 알렸다. 또 프로야구 시즌인 지난 5월부터는 고척돔 초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경기장을 찾은 수십만명의 관중에게 검진의 중요

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약사회, 조은제이엔피와 함께 조제약 봉투를 활용한 국가암검진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매체를 활용해 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오 팀장은 내년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돌아온 답은 거창하지 않았다.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 바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을 넘어 결국 모두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건강은 특별한 때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 검진 제도가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암 검진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12년 만에 정상 탈환...남동헌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 韓 배드민턴 순항...안세영·남자 복식 4강 진출
/사진 뉴스시스

▲ 韓 펜싱, 단체전 전 종목 메달 확보...女 사브르·男 에페, 준결승 진출

▲ 강준이,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사상 첫 우승

▲ 김하성, 2년 만에 3루타 ‘왕’...1안타 1볼넷 2득점 활약

▲ 조규성, 우루과이전 앞두고 소집 해제...‘회복 집중’